



#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 2015 ANNUAL REPORT 기술보증기금 연차보고서

#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2015  
ANNUAL REPORT  
기술보증기금 연차보고서



# 2015 ANNUAL REPORT CONTENTS

CEO 인사말 .....	05
<b>1장 경제동향</b>	
제1절 개황 .....	08
제2절 세계경제 .....	09
제3절 국내경제 .....	12
제4절 향후 경제전망 .....	14
<b>2장 중소·벤처기업동향</b>	
제1절 중소기업 .....	18
제2절 벤처기업 .....	19
제3절 이노비즈기업 .....	21
<b>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b>	
제1절 개요 .....	24
제2절 일반현황 .....	26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31
1. 총괄 .....	31
2. 기술보증 .....	35
3. 기술평가 .....	41
4. 보증연계투자 .....	52
5. 기업지원 .....	55
6. 구상권관리·재기지원 .....	59
7. 인재채용 및 인력개발 .....	62
8. 고객만족 .....	64
9. 윤리경영 .....	66
10. 리스크관리 .....	68
11. 정보화 업무 .....	69
12. 사회공헌활동 .....	71
13. 국제협력 .....	73
<b>부록</b>	
1. 결산 재무제표 .....	76
2. 상임이사/비상임이사 .....	78
3. 운영위원 .....	80
4. 주요일지 .....	81
5. 영업점 현황 .....	82

## CEO MESSAGE

지난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에 머물면서 국내 경제도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 성장이 정체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개를 돌파하고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이 460개에 달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지표들도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벤처천억기업 중 393개 기업이 창업기 또는 성장기에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기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술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보의 총 보증규모는 설립 이래 최대인 약 20조 7,000억원으로 기술창업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개발 등 기술평가시스템을 더욱 세분화하여 기술평가 역량을 한층 확충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해 국가나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중개하고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기술평가는 1997년 최초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50만 8,000여건의 누적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 수행 건수도 매년 늘어 국내 기술평가 시장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증사고율은 최근 10년내 최저치에 가까운 4.1%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기보의 보증지원과 함께 투자할 가치가 있는 보증기업은 연계투자를 통해 직접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하였고, 종합 경영·컨설팅 지원과 벤처기업확인 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 평가 등 기술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조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위한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기보도 이들 혁신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가운데 두드러질 만한 것으로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손질해 오던 연대보증 제도를 2016년 초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 창업기업이 신규로 기보 보증을 이용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업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대표자 연대보증 책임이 사라져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창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보는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보의 앞날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이사장 **김한철**



# 경제 동향

기보는 기술금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지난 27년간 국내 기술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금융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기보는 한국형 기술금융 제도를 해외에 전파하여 기술금융의 명가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 창조경제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207,096 억원

2015년말 보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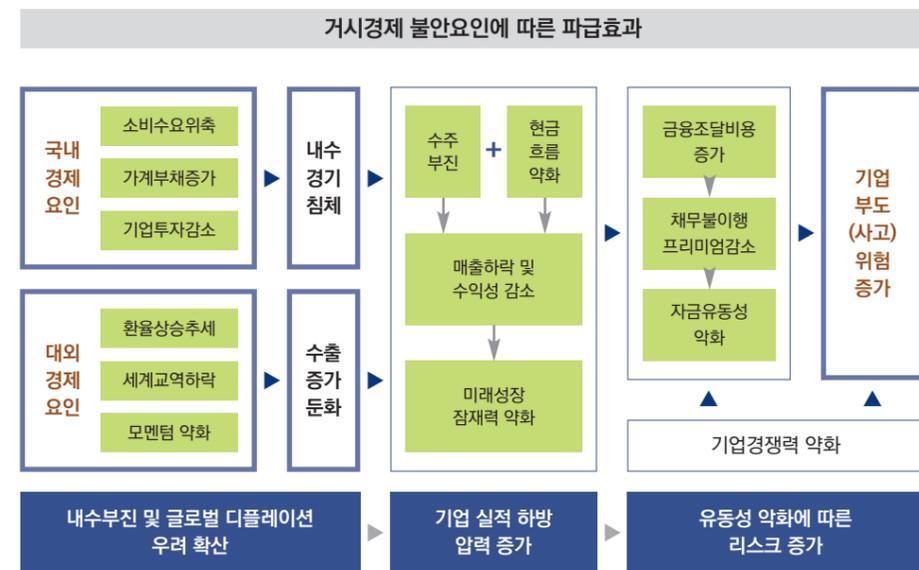
20조 7,096억원

- 제1절 개 황
- 제2절 세계경제
- 제3절 국내경제
- 제4절 향후 경제전망

# 01 개황

2015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상호 엇갈린 양상을 보이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3% 내외의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저유가로 인해 신흥국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세계경기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증가하면서 30달러 초반 대까지 하락하였고, 천연자원 생산국들의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국의 경기 부진, 신흥국 불안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중국 성장률 저조 및 자금을 상승, 엔화약세가 지속된 것도 수출 및 투자 부진을 야기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수요가 감소하고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감소했고 재고도 쌓이면서 내수 성장을 제약했다. 정부에서 추경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단기적 부양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 3.3%를 기록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까지 떨어지면서 하향세를 보였다.



# 02 세계경제

## 01 총괄

2015년 세계경제는 2014년 이후 하강세를 보이며 점차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경제 불확실성 및 리스크로 인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활력이 저하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양호한 성장세와 유로존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에 따라 경기가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신흥국의 경우 유가하락과 중국의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아 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기업 이익이 개선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중국은 수출부진에 따른 제조업 위축이 성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3.0	3.2	3.4
미국	2.4	2.4	2.3
유로	1.5	1.7	1.8
일본	0.6	1.0	0.7
중국	6.9	6.6	6.4
세계교역신장률	2.7	3.1	3.6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17.5	-7.5	2.0

자료 : 한국은행 (2016.1월 경제전망보고서)

단위: %, 전년동기대비

02

주요 국가별 동향



유로 지역

ECB(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부양효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1%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로 소비와 수출이 늘면서 기업대출과 투자가 증가했다.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인해 낮아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추가 양적완화로 인해 4분기에 다시 개선추세를 보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내수를 바탕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증가하였으나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12%대였던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하락하였고, 11월에는 재정위기 이후 가장 낮은 10.5%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ECB목표치인 2.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편, 난민사태로 인해 유로존 국가 간 이해충돌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유로존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과 세계적인 수요 둔화로 인해 수출 부진을 겪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GDP성장률은 목표인 7.0%를 달성하지 못하고 6.9%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공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과잉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도 수출 및 투자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고정자산투자는 2015년 1분기 13.5%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다 4분기에는 10.0%에 머물렀다. 기업의 생산자동률이 떨어지면서 제조업의 순이익은 2015년 10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4.6%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자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선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제조업 2025', '13차 5개년 계획' 등을 감안할 때, 향후 6% 중반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2015년 1분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2분기, 아시아지역의 수출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0.1%)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인한 기업부문이 호전되면서, 연간 성장률 0.6%를 기록하는 등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기업투자가 서비스업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성장률 견인하는 가운데, 엔저와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기업 이익은 개선되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급등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3.3%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소비세율 인상효과가 소멸되면서 0%대의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의 수익 개선과 낮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 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간신히 벗어나고 있어서 민간 소비는 미진했다. 무역수지는 미국과 아세안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 하락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1,403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2015년 미국경제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민간소비와 주택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었으며, 2%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1분기에 전기 대비 연율 기준 GDP성장률은 0.6%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개인소비지출 증대 영향으로 3.9%까지 회복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2.4%를 기록했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로 인해 자본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둔화되었고, 내부에서도 임금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으면서 기업의 수익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실질임금은 상승하면서 하반기 성장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경우 주택 투자는 2015년 전기 대비 8.7%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조물 투자는 전기 대비 -1.5% 하락하였다.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3분기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2.7%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과 신흥국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신흥 경제국

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신흥국이 유가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어갔다. 브라질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8%까지 확대되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와 저유가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3%대 중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인도는 저유가로 물가가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7%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뒷받침 했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강세와 원자재 가격의 약세와 더불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신흥국의 해외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감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 03 국내경제

## 01 총괄

2015년 국내경기는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이 둔화되었고 내수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반기 들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저유가 기조 지속과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는 앞으로도 내수 및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관별 국내 경제전망								
구분	한국은행 (2016.1월)		KDI (2015.12월)		LG경제연구원 (2015.12월)		기재부 (2015.12월)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경제성장률	2.6	3.0	2.6	3.0	2.6	2.5	2.7	3.1
소비자물가	0.7	1.4	0.7	1.4	0.7	1.2	0.7	1.5
경상수지	1,075	980	1,110	1,050	1,089	1,064	1,120	980
실업률	3.6	3.5	3.7	3.6	3.6	3.7	3.6	3.5

자료 : ( )는 각 기관별 경제전망 발표일.

단위: %, 억달러

## 02 주요 부문별 동향

### ● 민간소비

2015년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메르스 여파로 인해 '98'까지 떨어지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국내 관광 및 소매판매 부진을 심화시켰다. 여기에 과도한 가계부채와 금리상승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를 위축시켰고, 고용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 또한 소비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 고령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저하 역시 국민의 소비성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인 71.5%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위축되었던 소비는 하반기부터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가 소폭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판매액 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에선 감소세를 보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하였고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저유가로 인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상승하고 추경으로 내수가 호전되면서 소비를 진작시켰다.

### ● 수출입

2015년 수출은 중국의 경기 부진과 일본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7.9% 감소를 보였다. 반도체 수요 부진과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선박 수출의 감소, 유가하락으로 인해 석유제품이 36.4%이상 감소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다. 저유가로 수출 단가는 10% 가까이 하락했고 세계교역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연간 총수출은 439억 달러, 일평균은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11월중 94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나 전월에 비해 흑자폭은 감소하였다.

### ● 환율

원/달러 환율은 2분기까지 1,100원 선을 맴돌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와 유가급락, 중국발 금융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상승세를 보였다. 6월 이후 중국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미연준의 금리인상이 기대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연초 177.36이었던 원/위안 환율은 등락을 반복하다 12월말 179.11을 기록했다. 원/엔화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였다.

통화별 환율 추이						
구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월)	2016년(2월)
		원/달러	환율	1,055.4	1,099.3	1,172.5
	절상률(%)	1.4	-4.0	-6.2	-2.2	-5.2
엔/달러	환율	105.3	120.4	120.4	120.5	112.9
	절상률(%)	-17.9	-12.5	0.0	-0.1	6.6
원/100엔	환율	1,002.3	913.0	974.1	995.1	1,095.4
	절상률(%)	23.5	9.8	-6.3	-2.1	-11.1

자료 : 기획재정부(통화별 환율 조사통계)

주석 :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변동률,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증가

단위: 원/달러

### ● 설비투자

설비투자지수는 2015년 3분기 전기 대비 4.7%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11월 들어 일반기계와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6.0% 감소하였다.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평균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 철강, 조선 등 주요 제조업 가동률이 대부분 낮아지면서 신규투자를 제약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신흥국 불안 등의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 건설투자

국민계정 건설투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소유주택 확대와 같은 부동산경제 활성화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호조세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구매 수요와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증가하였고, 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건설투자는 활성화되었다.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건축기성 증가율과 토목기성 증가율은 2015년 들어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1월중 강수일수는 예년에 비해 두 배 수준인 14.9일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기성액은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 04 향후 경제전망

2016년 세계경제는 지난해부터 전반적인 하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로 세계 실물경기를 부양하던 통화정책이 바뀌면서 2015년 하반기에 이어 하향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반적인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둔화, 고용과 소비의 하향세로 세계 경제를 뒷받침 하는 힘이 약화될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성장추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커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신흥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초과공급 되면서 저유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고 주요 국가들의 통화약세로 인해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시행했던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소비 진작책의 효과가 소진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시장금리 상승가능성으로 인해 내수경기 회복 흐름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경쟁 심화로 수익성 하락을 겪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낮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벤처기업 현황

2012년 이후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벤처·이노비즈·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은 물론 기술평가보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종합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03,333 억원

기술창업기업 지원 보증(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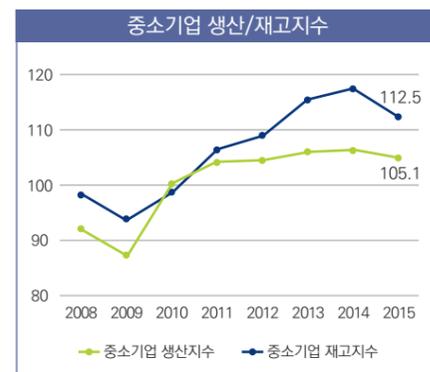
기술창업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인 신기술 사업자

- 제1절 중소기업
- 제2절 벤처기업
- 제3절 이노비즈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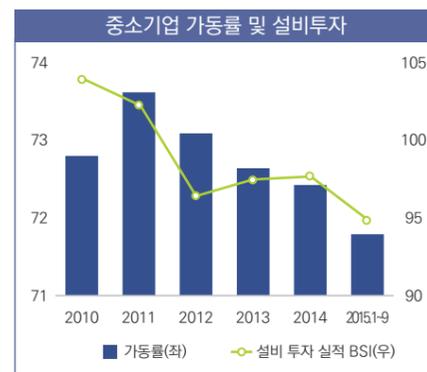
# 01 중소기업

200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1분기 '102.4'로 시작해서 4분기에는 '108.8'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5년 기준 '105.1'을 기록하며 전년(106.4) 대비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내수침체, 중국 댕 리스크로 인해 중소기업 가동률과 재고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 신설법인은 93,768개로 2014년(84,697개) 대비 9,071개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5년 초만 해도 저금리로 자금 상황이 나쁘지 않았으나 6월 이후 차이나 인사이드 현상, 엔저 지속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부 자금 조달이 힘든 모습을 보였다.

작년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중소기업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설비 투자도 부진했다. 경기 둔화로 재고가 쌓이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역시 가동률이 반등하고 누적된 재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료 : 통계청  
주석 : 2010=100 단위: 지수



자료 : IBK경제연구소, 한국은행  
주석 : 연평균 단위 : (좌) %, (우) 기준=100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2011년 이후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내부 자금 조달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외부 자금 조달 사정은 작년 초만 해도 저금리로 인해 나쁘지 않았으나, 작년 중순이후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였다. 올해에도 시장금리가 서서히 상승하고 금융권의 대외적 리스크 관리가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외부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차이나 인사이드 현상 심화, 엔저 지속과 같은 대내외 구조적 경제요인들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 개선도 쉽지 않아 내부 자금 사정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 02 벤처기업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98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1년 7월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04년 4월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과 2006년 6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벤처기업 확인 기능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2008년에는 벤처기업 수가 1만 5천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이 필요없음에도 벤처확인을 위해서 기술평가보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보증금액이 아닌 기술평가보증 가능결정금액으로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기업 수가 2010년 5월 2만개를 돌파한 이후 2015년 말에는 31,260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평가보증 위주의 보증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과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정책 수혜 등을 위한 인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업체수(개)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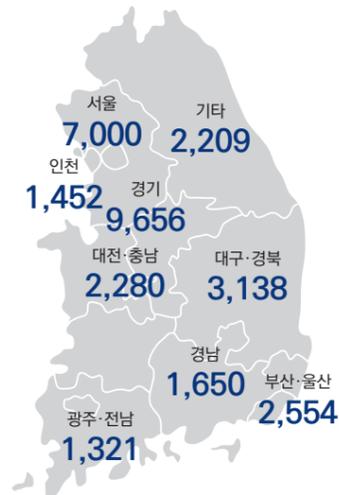
자료 : 벤처인

벤처기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에 70.4%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S/W업종에 16.6%가 분포되어 있다.



자료 : 벤처인, 2015년말 기준

제2장 중소·벤처기업현황



※ 2015 벤처기업 총 **31,260**

또한, 지역별로는 벤처기업의 57.9%가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경기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경남	인천	광주·전남	기타	계
업체수(개)	9,656	7,000	3,138	2,554	2,280	1,650	1,452	1,321	2,209	31,260
(구성비)	(30.9%)	(22.4%)	(10%)	(8.1%)	(7.3%)	(5.3%)	(4.6%)	(4.2%)	(7.2%)	(100%)

자료 : 벤처인, 2015년말 기준

벤처기업은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천역기업 수가 '15년('14년 결산 기준) 460개로 '14년 대비 1.3%(6개사) 증가하는 등 벤처산업의 성장기반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결산년도)	'08년 ('07년)	'09년 ('08년)	'10년 ('09년)	'11년 ('10년)	'12년 ('11년)	'13년 ('12년)	'14년 ('13년)	'15년 ('14년)
업체수(개)	152	202	242	315	381	416	454	460

자료 : 벤처인

'15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벤처천역기업 460개 중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93개 기업에 총 2조 5,242억원의 신규보증 지원이 이루어져 이 중 318개사(80.9%)는 보증을 졸업했고, 75개사(19.1%)는 보증잔액 1,72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구분	보증졸업기업		보증거래기업		합계	
	업체수	신규공급	업체수	신규공급	업체수	신규공급
보증현황 (구성비)	318 (80.9%)	18,406 (73%)	75 (19.1%)	6,836 (27%)	393 (100%)	25,242 (100%)

단위: 개, 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중 기업공개된 기업은 205개 업체로 최초보증 취급 당시 31개 업체, 보증거래 기간 중 144개 업체, 보증졸업 이후 30개사가 IPO에 성공하여 보증이용기간 중 성장·성숙 과정을 거쳐 IPO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03 이노비즈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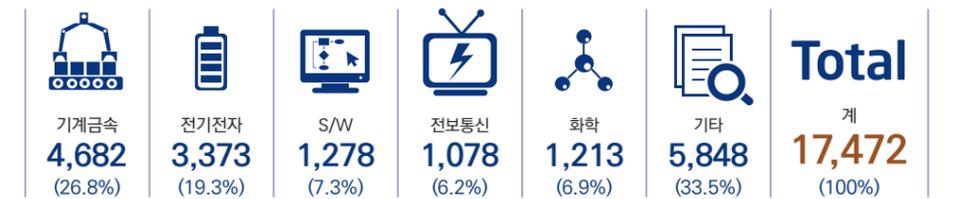
21세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진전에 따른 국제적 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01년부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노비즈 인증 신청기업이 증가하여 '15년말 현재 17,472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았다.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업체수(개)	14,626	15,939	16,243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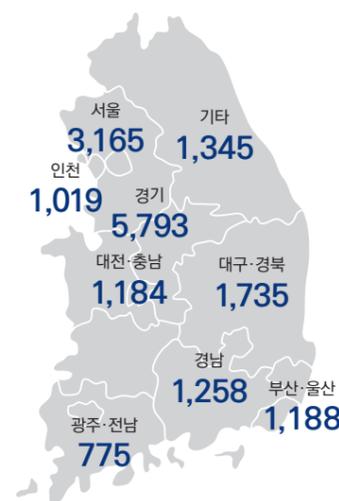
구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S/W	정보통신	화학	기타	계
업체수(개) (구성비)	4,682 (26.8%)	3,373 (19.3%)	1,278 (7.3%)	1,078 (6.2%)	1,213 (6.9%)	5,848 (33.5%)	17,472 (100%)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말 기준



구분	경기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경남	인천	광주·전남	기타	계
업체수(개)	5,793	3,165	1,735	1,188	1,184	1,258	1,019	775	1,345	17,472
(구성비)	(33.2%)	(18.1%)	(9.9%)	(6.8%)	(6.8%)	(7.2%)	(5.8%)	(4.4%)	(7.8%)	(100%)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말 기준



※ 2015 이노비즈기업 총 **17,472**

#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기보는 탄탄한 기술 평가 인력과 시스템으로 기술 금융을 선도합니다. 기보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와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술평가조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축적되지 않아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기술창업 중소기업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고 기업인들이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제1절 개 요
- 제2절 일반현황
-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01 개요

## 01 역할

기보는 1989년 설립 이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약 280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선도해 왔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R&D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기술의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수립,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주도적 참여 등의 선제적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창업·혁신·기술기업의 중점 지원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과 민간 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02 설립 목적

- ①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②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 03 주요 연혁

1990	1989. 4.	기술보증기금 설립 ('86.12월 기금설치)
	1997. 3.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1999. 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2000	2005. 7.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2006. 6.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
	2007. 1.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 일원화(재무중심 심사 폐지)
2010	2011. 5.	부산 문현국제금융단지 본점 입주
	2012. 6.	보증연계투자 업무 법제화
	2015. 1.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 구축(기술융합센터, KTMS 운용)
	2015.12.	누적보증공급액 280조원 돌파, 보증규모 20.7조원, 거래기업수 7만개 돌파

## 04 비전 및 전략



# 02 일반현황

## 01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기보는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 기관으로, 기본재산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써 자본금인 동시에 대위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며,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기보에 출연('13년 600억원, '14년 500억원, '15년 400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기술·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술보증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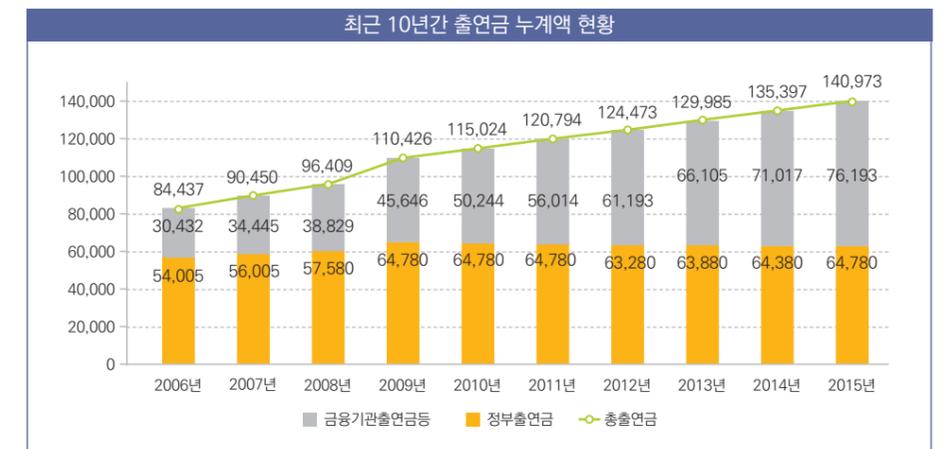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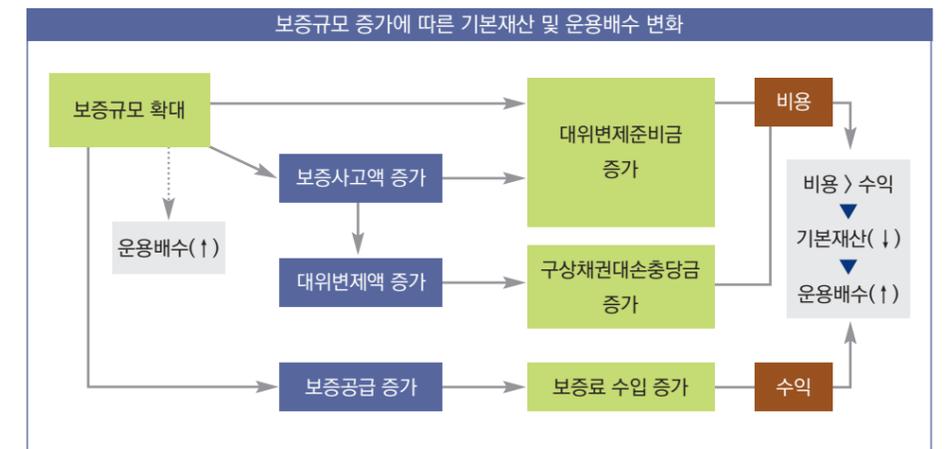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기술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및 신용도 파악에 소요되는 취급비용을 낮추고, 자금공급에 수반되는 위험을 없애주어 대손충당금 비용을 절감하게 됨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이용의 대가적 성격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다. 금융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대상 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1.35±0.02(차등요율),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분기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3을 출연하고 있으며, 별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은 특별출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기보의 기본재산은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 여력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공신력 확보 등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에 의해 조성되는 기본재산 및 보증료, 손해금, 예치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이익금은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보의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여유금은 금융회사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기보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2015년도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사고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특별출연금 403억원 추가 확보, 투자주식 매각 등 자산처분이익 626억원 시현 등 자체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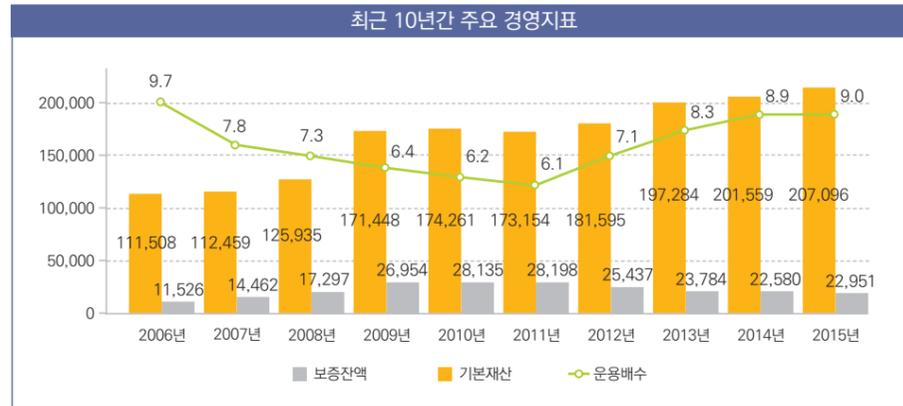
또한 보증회계준칙의 제정·시행으로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전체 보증잔액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정하였던 보증충당부채의 적립이 완료되어 대위변제비용(구상채권상각비, 대위변제준비비)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본재산은 전년말 대비 371억원 증가한 22,9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운용배수는 일정시점에서의 기술보증규모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배)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정부정책 및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여력 등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보증규모, 사고율 및 대위변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운용배수는 보증제도의 최대장점인 승수효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증운용의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9.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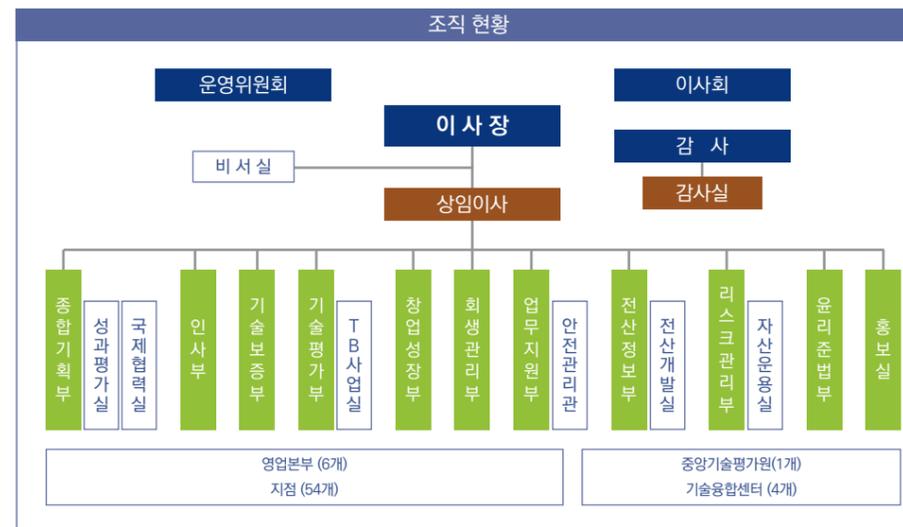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단위: 억원, 배

본부조직은 기술금융 지원확대 및 다각화에 따른 업무량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증기획 업무와 운영 업무의 통합 및 전산개발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토록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영업조직은 기술금융 현장 확산을 위하여 영남지역 영업본부를 대구영업본부와 부산영업본부로 분할하고 마산지점과 경산지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말 현재 기보의 조직은 본부(10부 2실) 및 영업점(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4개, 영업본부 6개, 지점 54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 7명, 별정직 85명 등을 포함하여 총 1,1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별정직	계
현원	7	19	82	226	439	268	85	1,126

단위: 명

02 조직 및 인원

03 주요 업무 등

기보의 주요 업무는 핵심업무인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업무와 부수업무인 경영지도 및 기업지도, 기술혁신지원 업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핵심업무	<b>기술보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중소기업이 창업, R&amp;D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li> <li>* 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일반보증 신규지원 중단('04.8월)</li> </ul> <table border="1"> <tr> <td>기술창업보증</td> <td>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td> </tr> <tr> <td>기술혁신형보증</td> <td>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td> </tr> <tr> <td>기술평가보증</td> <td>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td> </tr> </table>	기술창업보증	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보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보증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창업보증	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보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보증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b>기술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융자 등 다양한 목적의 기술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li> </ul> <table border="1"> <tr> <td>기술가치평가</td> <td>당해 기술에 의해 시험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험될 가치를 평가</td> </tr> <tr> <td>기술사업 타당성평가</td> <td>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td> </tr> <tr> <td>종합기술평가</td> <td>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td> </tr> </table>	기술가치평가	당해 기술에 의해 시험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험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가치평가	당해 기술에 의해 시험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험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b>보증연계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 지원</li> <li>-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li> </ul>						
	<b>구상권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부실 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구상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관리</li> <li>- 채권보전,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 및 임의상환 유도 등</li> <li>- 채권회수 중심에서 성실한 실패의 신용회복과 재창업 지원으로 범위 확대</li> </ul>						
	부수업무	<b>경영지도 및 기술지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li> <li>- 경영 및 기술진단, 기술자문, 창업교육, 창업강좌 및 연수, 판로개척, 멘토링제도,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M&amp;A 등</li> </ul>					
		<b>기술혁신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li> <li>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li> </ul>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기보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기보의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기술금융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중점지원부문으로 설정하여 부문별 목표(Quota)를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이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핵심고객

-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고위험과 고수익성이 수반되는 **벤처기업**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노비즈기업**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R&D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미래성장 유망업종(6T)**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벤처기업

-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유형
  -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 연구개발기업
  - 벤처투자기업

이노비즈기업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요건
  -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기술혁신시스템 평점이 700점 이상이고 기술사업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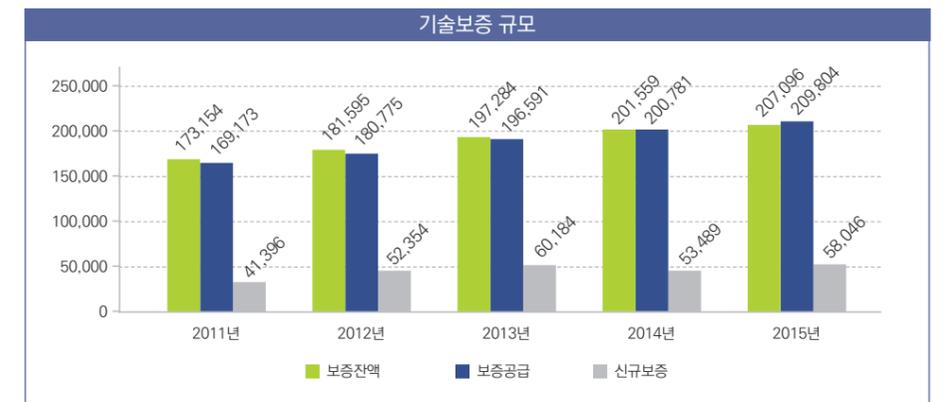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01  
총괄

2015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약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저성장 기조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보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부문을 집중 지원하였고, 기술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도 기술력 중심의 신용대출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상권 회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였다.

가. 기술보증

기보는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2015년도의 총보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5.5천억원 증가한 20.7조원을 기록하였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잔액	173,154	181,595	197,284	201,559	207,096
보증공급	169,173	180,775	196,591	200,781	209,804
신규보증	41,396	52,354	60,184	53,489	58,046

단위: 억원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기술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b>기술창업기업</b> 창업 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b>신성장동력산업</b> 정부확정 3대 분야 17개 산업의 대표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b>R&amp;D 활성화</b>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 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57,742	91,928	78,000	103,333
신성장동력산업	24,022	61,046	56,000	70,812
R&D활성화	16,340	29,515	30,000	34,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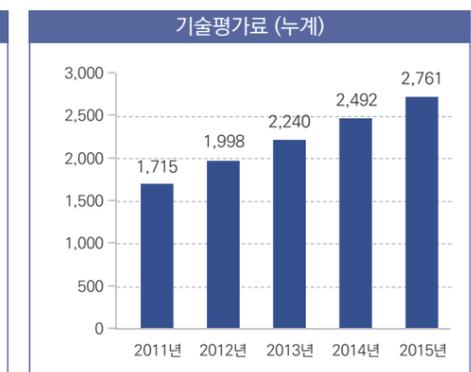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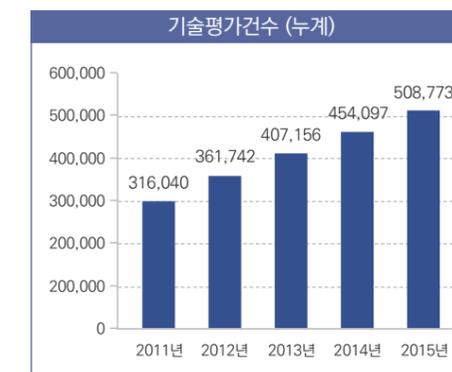
단위: 억원

나. 기술평가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기보는 1997년 3월 최초로 기술평가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까지 총 508,773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고, 기술평가로 누적 수입금액은 2,761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보 기술평가 시스템의 활용범위

<b>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b>	<b>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b>	<b>개발기술의 사업화타당성평가</b>	<b>특허 등 무형자산 가치 산정</b>
· 기술평가보증 · 기술기반 신용대출 · 보증연계투자 지원	· 벤처기업 확인 · 이노비즈 인증 · 녹색기술 인증	· R&D 지원 평가 · R&D 경제성 평가	· 기술이전 및 M&A · 현물출자 · 특허권 담보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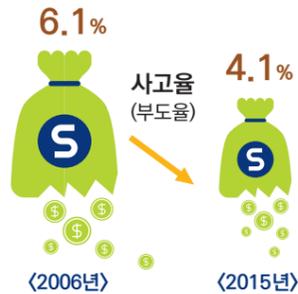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술평가건수 (누계)	40,702	45,702	45,414	46,941	54,676
기술평가료 (누계)	235	283	242	252	269
	1,715	1,998	2,240	2,492	2,761

단위: 건, 억원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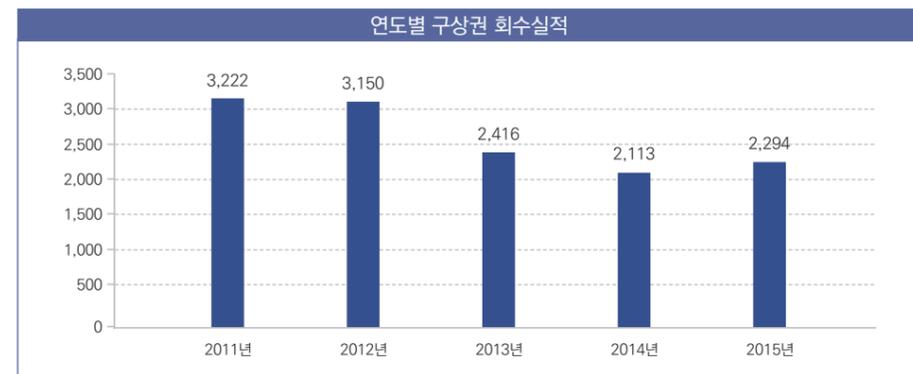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구조개선 및 실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증자산의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율은 2006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어 2015년 사고율은 4.1%를 기록하였다.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고순증금액	6,791	6,050	7,679	7,420	8,184	8,715	9,026	7,551	8,802	8,457
사고율	6.1	5.4	6.1	4.3	4.7	5.0	5.0	4.0	4.4	4.1

단위: 억원, %

정부의「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 혁신대책을 반영하여 실패예방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파산신청 등 채무면책 증가, 연대보증인 축소 등으로 구상권 회수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구상권 회수지원 발굴노력 강화, 회수가능성 위주 채무자별 차별화전략 및 공공기관보유 정보활용의 정례화 등을 시행하고, 다양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구상권 회수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기미회수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상각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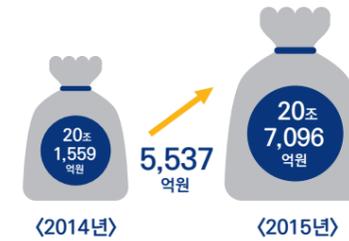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상채권 잔액	18,042	19,641	18,594	19,076	19,719
구상권 회수	3,222	3,150	2,416	2,113	2,294

단위: 억원

02  
기술보증

가. 기술보증지원



● 총보증지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재도약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보는 기술금융 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기술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기술금융을 통해 중점지원분야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20조 9,804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규모는 20조 7,096억원으로 전년대비 5,537억원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일자리창출기업,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 보증공급 대비 비중이 2014년 대비 0.8%p증가한 96.1%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금융시장에 편중된 중소기업 대출을 직접금융시장으로 확대한 우수기술 유동화보증 또한 1,169억원 규모로 발행하였다.

●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창업기업에 보증 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분	2013년	비중	2014년	비중	2015년	비중
총보증공급	193,539	100.0	196,032	100.0	209,804	100.0
기술혁신기업	183,727	94.9	186,756	95.3	200,447	95.5
벤처기업	115,860	59.9	111,718	57.0	119,368	56.9
이노비즈기업	78,123	40.4	70,867	36.2	67,359	32.1
창업기업	87,142	45.0	91,928	46.9	103,333	49.3
기술평가보증	184,625	95.4	188,832	96.3	202,802	96.7
지식문화산업	30,843	15.9	31,519	16.1	34,190	16.3
일자리창출기업	44,887	23.2	41,827	21.3	50,043	24.0
신성장동력산업	57,742	29.8	61,046	31.1	70,812	23.9
유동화회사보증	3,052	1.6	4,749	2.4	1,169	33.8
총보증잔액	197,284	-	201,559	-	207,096	-

단위: 억원, %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5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20조 447억원으로 2014년 18조 6,756억원 대비 1조 3,691억원 증가하였고,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도 95.5%로 2014년도 95.3%보다 0.2%p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 분위기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신기술 사업자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및 보증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8조 7,142억원(45.0%), 2014년에는 9조 1,928억원(46.9%), 2015년에는 10조 3,333억원(49.3%)을 지원하는 등 규모 및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기술평가보증

기술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금융지원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으로 전년도 18조 8,832억원(96.3%)대비 1조 3,970억원 증가한 20조 2,802억원(96.7%)을 지원하는 등 기술평가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지원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보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핵심분야(우수기술기업·녹색성장기업·수출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고위험·신성장 분야(창조경제지원보증)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4대 핵심분야 보증지원				
핵심분야				
	우수기술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2014년	7.2조원	3.5조원	2.7조원	5.0조원
2015년	7.7조원(↑0.5)	3.5조원	3.0조원(↑0.3)	5.5조원(↑0.5)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가속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우대제도 최초 도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지자체 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출범하였다. 혁신센터는 지역 내 창업·사업화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준비, 성공 가능성 검증,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창업 허브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지역내 창업·중소기업 육성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보는 금융기관 중 최초로 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센터 입주기업, 창조경제 타운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시행(2015년 2월)하였다. 또한 기보·금융기관(기업은행)·혁신센터 3자 간의 상호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2015년 9월)하여 혁신센터 우대보증을 전국 19개 혁신센터로 확대하였고,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우대보증 재원으로 확보하여 2015년 896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 혁신센터, 대기업,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별 특화업종 지원 강화

각 지역별 혁신센터는 센터 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을 창업단계별 지원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혁신센터·지자체와 기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업의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마련한 후 지역별 특화업종 영위기업을 추천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2015년 2월~) 현재 대기업(LG, 네이버, 현대차, KT, 두산, 한진)이 충북, 강원, 광주, 경기, 경남, 인천 소재 혁신센터와 추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17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다.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분위기 조성

● 일자리 창출기업·고용창출보증 지원 확대

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선정하여 심사완화, 보증료 우대 등을 통해 2015년 5조 43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실제 고용 확대 기업이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의 만기 도래시 재선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을 통해 2015년 4,985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 대상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기업 지원, 청년 채용기업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채용기업 지원으로 제도를 이원화 한 「청년채용 연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대지원을 강화하였다. (2015년10월)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 지원 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유형에 따라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첼린저창업, 40·50 창업, 1인창조기업, 첨단·부리산업, 지식재산권창업' 등 7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보증」을 통해 1만 1,506개 창업기업에 2조 7,477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1만 3,122개 창업기업에 3조 2,410억원(전체 신규보증 5조 8,003억원의 55.8%으로 전년대비 1.3% 비중 증가)을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 평가를 거쳐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도전적 창업을 위한 창업안전망 구축**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 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신규 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는 계속 감소(2015년 개인기업 0.05명, 법인기업 1.02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연대보증인 면제를 기술력이 우수(기술사업평가등급 AAA~A)한 비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법적 변제책임 소멸·완료 채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구상채무 변제 완료기업에 대한 보증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1년 평균 연대보증인 수>



<2015년 평균 연대보증인 수>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인기업	0.27	0.17	0.09	0.06	0.05
법인기업	1.55	1.14	1.07	1.03	1.02

단위 : 명

라. 고성장·고부가 지식문화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

● **지식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지식·정보화시대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보는 Post-제조업 성장엔진으로서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금융으로 흡수 가능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부문"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정하여 2019년까지 신규보증을 4,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지식문화 관련업종을 기술금융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능동적 제도개선 및 지속적 보증지원 확대 노력을 경주하여 2015년 보증잔액 비중은 16.4%(계획 15.0%) 수준을 달성하였다.

●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노력**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8월에 도입한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의 운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간의 고질적인 금융갭(gap) 해소 및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사업수행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보증지원으로 업무효율 제고와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해 만기연장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15. 8) 하여 2015년 1,144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다.

●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제작지원과 투자유인을 위해 2009년 9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한 이후, 고객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산업완성보증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콘텐츠(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융합CG) 및 한류콘텐츠(수출용)에 대한 제작비 지원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였고, 제작역량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상환조건을 면제하고 수익금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2015년 SBS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5 조용필 콘서트' 등에 총 601억원의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였다.



마. 고객중심의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 업무처리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보증기한연장 시 절차를 단순화 하고 신용도 양호기업의 경우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에는 심사방법을 대폭 간소화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였고, 은행 변경 또는 법인전환 업무처리를 단순화 하였다. 또한 보증심사 시 비효율 업무부문 제거 및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절차 일원화 등 단계별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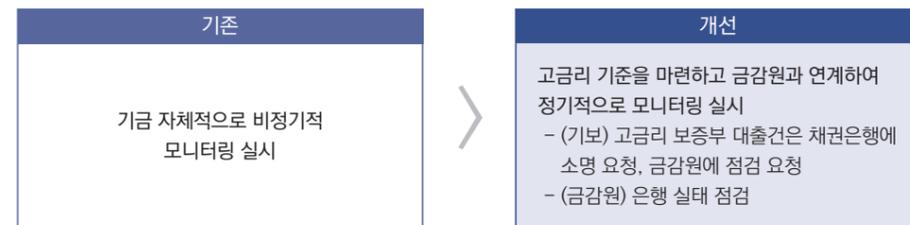
기업이 보증기한 연장 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기한연장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만기도래건 중 58.8%를 무방문으로 처리함에 따라 서류준비, 영업점 직접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여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영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보증부대출 금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보증부대출의 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최근 3개월 보증부대출 실행금리를 업체 맞춤형으로 조화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비교하기 위한 대고객 보증부대출 금리 공시시스템인 '금리알리미'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추가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금리 보증부 대출건은 채권은행에 소명 요청 및 금융감독원에 점검을 요청하는 등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약 250억원의 금융비용(전년대비 평균금리 0.71%p 하락)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03  
기술평가

가. 기술평가 개요

● 기술평가의 개념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의 범위



● 기술평가의 유형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의 종류

평가구분	정의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나. 기술평가사업 운영현황

● 사업경과

기보는 19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평가업무를 도입한 이래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벤처·이노비즈 기업 확인(인증)기관 및 TCB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 기술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90	1997.03.	기술평가센터 개소
	1997.05.	특허기술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발명진흥법)
	1997.10.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가액 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1998.08.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998.11.	외국인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외국인투자촉진법)
1999.0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2000	2001.04.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평가·거래 전문기관(기술이전촉진법)
	2001.07.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참고용 기술평가기관(한국증권업협회)
	2001.08.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중소기업청)
	2004.09.	기술평가인증제도(대내용) 시행
	2005.07.	신(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2007.04.	기술평가모형 KTRS 국내 BM특허 취득
	2008.04.	기술평가모형 KTRS 국제특허(PCT)의 개별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록 출원
2009.10.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KTRS-Startup) 국내특허 취득	
2010	2010.04.	정부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2010.10.	KTRS피드백 시스템 국내특허 등록(2건)
	2011.01.	KTRS 고도화 연구용역결과 적용·시행(KTRS-V2.0)
	2012.11.	녹색기술·산업 특성에 차별화된 녹색기술평가모형(GTRS) 개발
	2013.12.	KTRS계열모형 개선 및 체계 재정립(연구용역결과 적용)
	2014.06.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
	2014.07.	예비창업자평가모형 개발
	2015.07.	기술가치평가 방법 및 평가 노하우에 대한 BM특허 등록(2건)
2015.12.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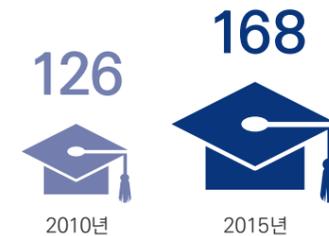
● 기술평가 조직 및 인력

증대되는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5년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4개, 지점 54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구분	역할	주요업무
중앙기술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등) -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기술평가 마케팅 - 기술평가서 검증 및 평가지원 등
기술융합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 기술거래·M&A 관련 전문기술평가(수반보증 포함) -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마케팅 업무 - 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평가센터	정형화된 기술평가 업무 수행	-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신용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 박사급 인력추이(단위: 명)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금전체직원수(명)	1,072	1,068	1,066	1,085	1,102	1,126
기술평가전담인력(명)	578	559	532	578	552	592
박사급 인력(명)	126	131	134	147	154	168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기술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2급이상 자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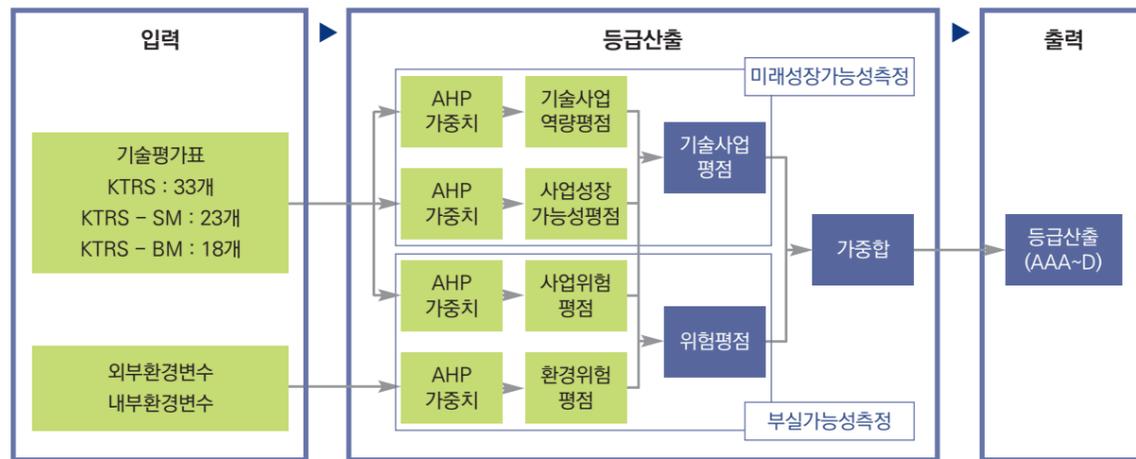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전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	섬유	계
173	129	132	89	83	13	1,074
생명(BIO)	환경	재무회계	특허법률	문화콘텐츠	기타	
97	36	156	48	5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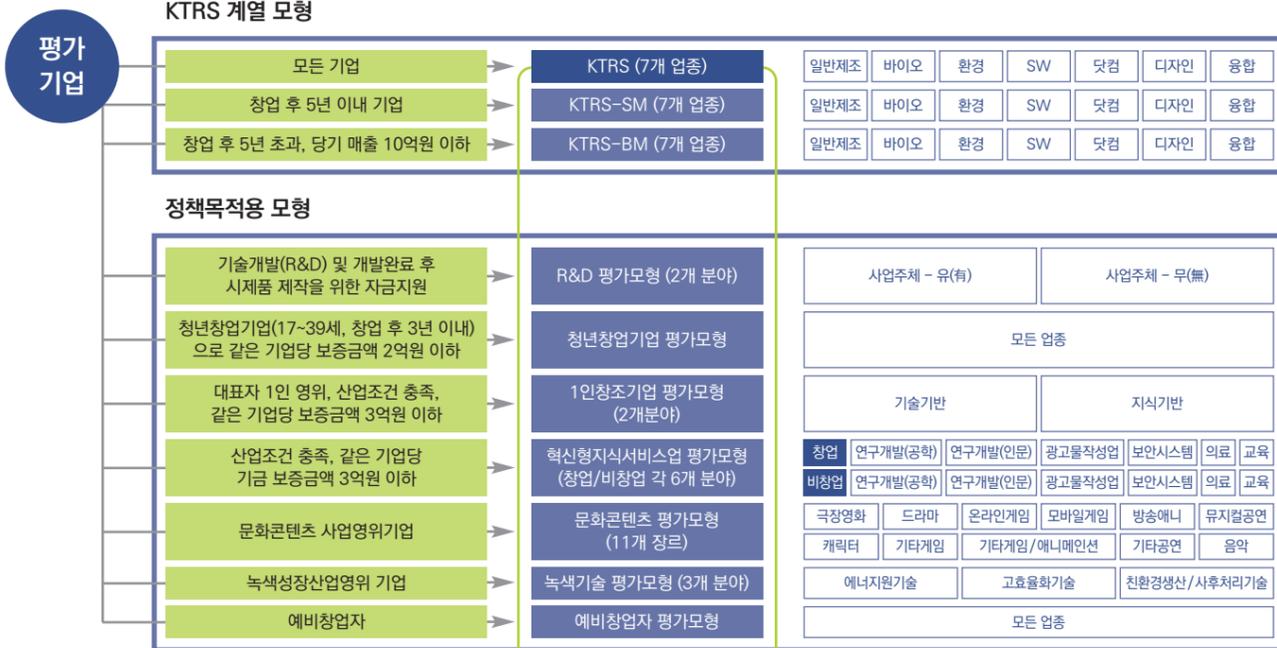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기술평가시스템

기보는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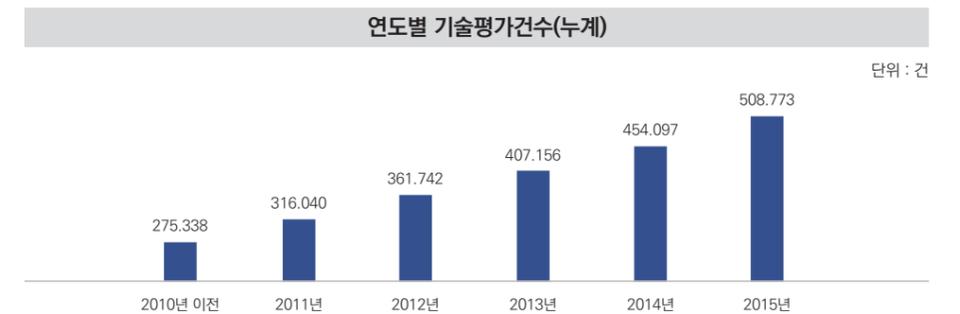


또한, 기보는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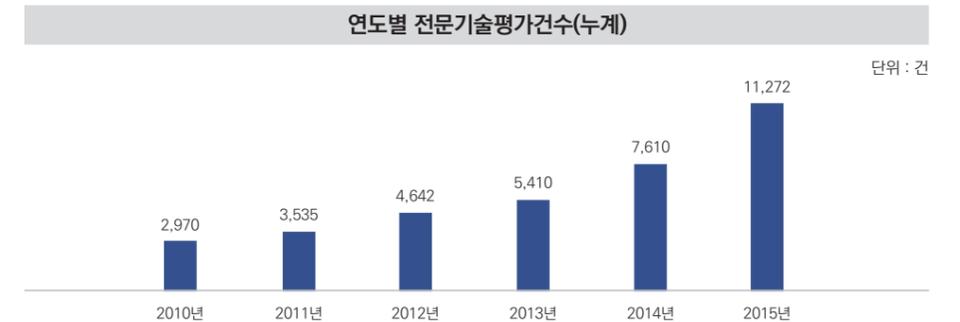


● 기술평가 수행 실적

1997년 3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5년말까지 총 50만 여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술평가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건당 평가료가 2백만원 이상인 민간부문 기술평가'는 일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로서 국내 기술평가 시장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유일한 공공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참여하여 은행·민간 TC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TCB제도의 조기 정착 및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TCB평가서 연계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하였다.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 현황			
TCB 제공건수(건)		이차보전(백만원)	
2014년(7월~)	2015년	2014년(7월~)	2015년
4,360	9,639	933	2,050

\* 이차보전제도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1~3%p의 이차를 보전

다. 2015년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

● 국내 지식재산(IP) 금융의 프론티어로서 역할 수행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등을 국내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보는 2013.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보증 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또는 인수)한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식재산(IP) 보증은 일반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가치평가 절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높은 평가비용이 수반되어 지원 확대에 장애가 존재하였으나, 특허청, 시중은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지원 협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공격적인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 일반 기술평가절차와는 차별화된 기술가치평가만의 심층 평가절차

지식재산(IP) 보증의 종류			
구분	IP평가보증	IP인수보증	IP투자보증
대상기업	지식재산(IP)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 (전용실시권자 포함)	사업화를 위해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인 기업	지식재산(IP)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 (전용실시권자 포함)
대상자금	신청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관련된 운전자금대출	지식재산의 인수부터 사업화 까지 전단계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대출	우수IP보유기업이 발행하는 사채(CB, BW)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보증 총지원	1,110	2,002	1,138	2,105	1,579	2,952	2,250	4,349
IP평가보증	995	1,794	1,020	1,915	1,313	2,602	1,794	3,811
IP인수보증	115	208	118	190	266	350	455	535
IP투자보증	-	-	-	-	-	-	1	3

단위 : 건, 억원

● R&D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고 R&D 사업화 과정 전주기를 지원하는「R&D보증」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R&D 중소기업 보증지원 제도			
단계별 구분	계획 또는 개발단계	시제품 제작단계	사업화 또는 양산단계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사업화단계			
대상자금	기술개발 중(R&D)에 있는 신청기술의 개발자금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개발완료 후 사업화와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평가방법	사업화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사업화 타당성 분석
평가모형	R&D평가모형		KTRS / KTRS-SM

또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술 등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간 융합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료 감면 및 심사기준완화 등의 우대조건을 갖춘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또는 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제도			
융합단계	융합 진행중		융합 완료 후, 사업화·양산
	기술도입 단계	연구개발 단계	사업화·양산 단계
구분	기술융합개발보증		기술융합사업보증
소요자금	기술도입자금 등	연구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R&D사업화자금 양산자금

R&D 관련 보증 지원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보증 총공급	4,696	16,340	6,713	24,022	8,543	29,515	10,853	34,257
개발단계	1,693	2,883	2,650	4,506	3,601	5,987	5,023	8,103
사업화준비단계	671	1,232	687	1,208	687	1,139	731	1,210
사업화단계	2,332	12,225	3,376	18,308	4,255	22,389	5,099	24,944
기술융합보증 총공급	-	-	910	4,145	1,841	6,804	2,302	9,513
융합개발	-	-	45	54	205	281	277	511
융합사업화	-	-	865	4,091	1,636	6,523	2,025	9,002

단위 : 건, 억원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국가 R&D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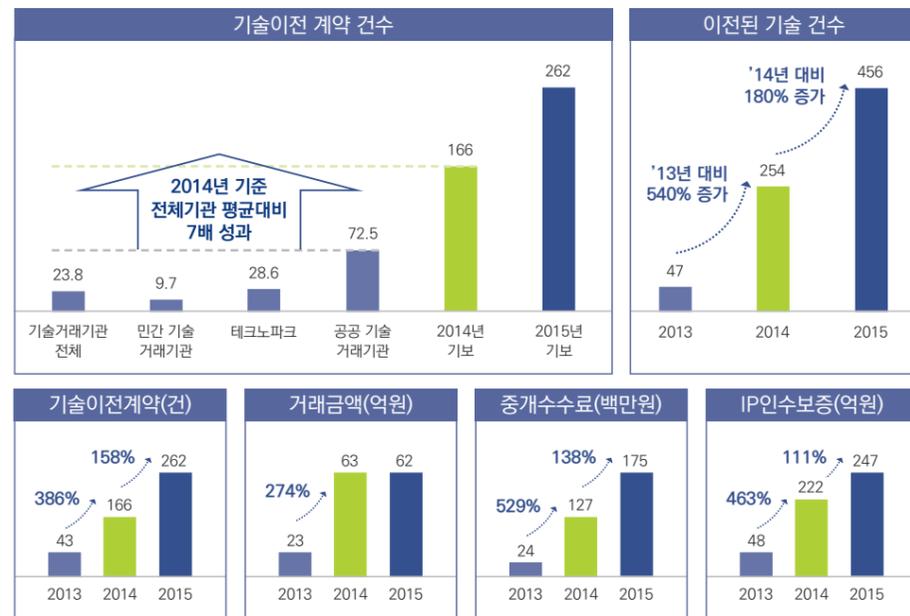
기보는 국가 R&D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기술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성과확대 견인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월 온라인 플랫폼인 Tech-Bridge('15년 12월말 현재 기술수요정보DB 누적건수 : 2,645건, 공급기술정보DB 누적건수 : 288,161건)를 구축하였다.

기보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플랫폼은 온라인(Tech-Bridge)과 전담조직(기술융합센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으로 수요중심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정보 집중기관과의 협업('15년 12월말 현재 10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가 R&D성과확산 및 우수 R&D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 시스템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 Tech-Bridge 플랫폼 구축 이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급성장

● 기술금융의 확산 기반 조성

유일한 공공 TCB 기관인 기보는 7개 시중은행과 함께 기술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위해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술기업 1+1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1+1 협약보증>은 기보가 보증서와 기술신용평가서를 협약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보증서 담보대출과 함께 기술기반 신용대출을 1+1으로 지원하는 복합형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적용, 최대 3년간 0.6%p의 보증료 지원과 기보의 보증비용 우대, 보증료 감면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협약은행 1+1 협약보증 지원현황 (2015년 9~12월)

협약은행	지원건수	보증금액	기술기반 신용대출
기업,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부산, 경남	2,382건	5,175억원	520억원 이상

또한, 기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 체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안으로 "기술금융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산업분야별 기술·시장의 특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중은행 및 VC 등의 기술금융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육과정	기술금융의 이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내용	4주, 온라인 교육 과정	9주, 집합연수
수강인원	3,300명	100명

2016년에는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보 내부 자격제도로 운영하고있던 "기술평가사" 제도를 기반으로 민간 자격제도의인 "기술신용평가사"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자격제도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합격자가 배출되면 급수에 맞게 다양한 실무연수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기술형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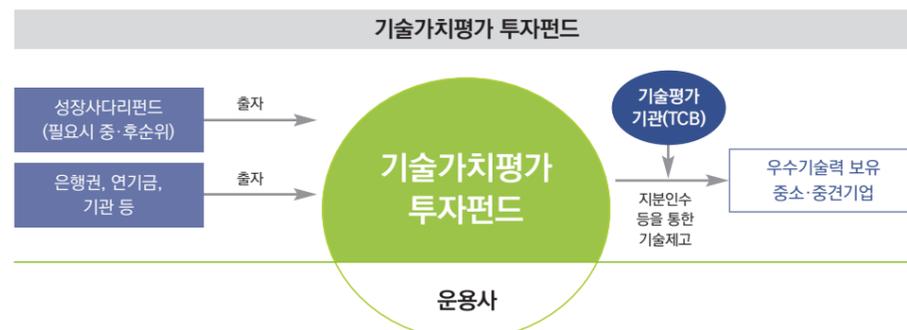
기보는 기술형 모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의 MOU를 통해 코스닥·코넥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상장을 위한 재무요건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기술평가를 거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술특례상장평가 제도				
구분	내용			
요건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결과가 BBB이상이고, 1개는 A이상			
평가실적 및 성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가기업(개)	4	5	12
	상장기업(개)	1	2	2

또한 투자 대상의 선별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성장성, 투자회수 가능성 관점에서 도출한 "투자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산업부의 '산업기술사업화펀드'와 금융위의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 프로그램'의 평가 모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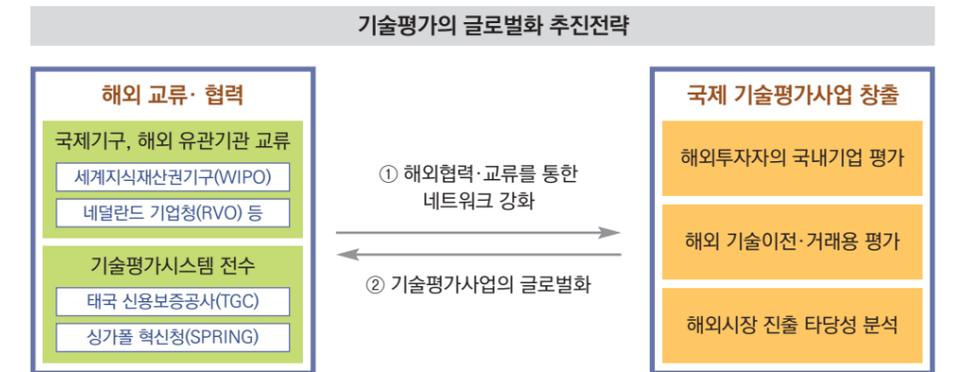
기존 모형과 투자용 평가모형 비교		
항목	기존 TCB모형	투자용 평가모형
초점	안정성 및 부실위험	기술력기반 성장가능성
특징	은행 등의 원리금 회수 관점의 평가지표를 강조	① VC 등 투자자 관점의 평가지표를 강조 ② 성장 단계별 세분화(사업화이전-사업화이후-일반)
주요지표	기술수준, 기술혁신성, 제품화역량 등	기술보호성, 기업가정신, 사업추진역량 등
활용	기술신용대출(여신)	VC, 엔젤투자 심사(투자)

한편, 2015년 626건의 투자용 기술평가인증서를 성장사다리펀드와 신성장동력펀드에 제공함으로써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VC 투자 심사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7개 기술가치펀드 운용사 및 TCB사와 "기술가치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기술평가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한류 형성

그동안 기보는 국제 교류와 기술평가 시스템의 해외전수를 통해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5년도에 이르러 처음으로 글로벌 기술평가사업에 걸맞는 성과로 나타났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해외전수			
전수기관	베트남 기술혁신원(SATI)	태국 신용보증공사(TGC)	싱가포르 혁신청(SPRING)
내용	베트남 기술평가시스템(VTRS) 구축	태국 기술평가시스템(TTRS) 구축	싱가포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구체적으로 UN산하 지식재산권 기구인 WIPO GREEN의 요청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에 대한 폐수처리기술 이전사업에서 국내 환경 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스위스 기반 투자사의 국내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약 1천만달러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10만달러 상당의 기술평가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 04

## 보증연계투자

### (1) 보증연계투자

#### 가. 개요

기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기금법령 개정·시행으로 보증연계투자가 기보의 고유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융자 위주의 금융관행과 과도한 리스크 회피 성향에서 벗어나 시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나. 투자종류

투자는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방식으로 한다.

#### 다. 투자대상기업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①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R&D 과제 수행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배제
- ② 투자심사일 현재 既 보증기업(또는 보증승인기업)
- ③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 라. 개별기업 투자한도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단, 투자금액은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기술평가 BB이상	기술평가 BBB이상
개별기업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개별기업 통합한도(보증+투자)	50억원	100억원
관계기업군 투자한도	30억원	30억원

※ 투자한도 : 기보 투자금액 기준  
 ※ 통합한도 : 기보, 신보, 보증재단의 보증금액 및 투자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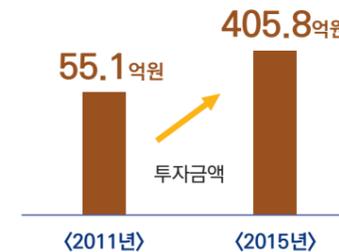
#### 마. 업무프로세스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신용도 및 투자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투자발굴 상담접수 예비검토	신용조사 기술평가 (현장실사)	투자심사 (Valuation) 조건협상	투자심사 위원회	투자계약 투자실행	동향관리 IPO지원	투자금 회 수 (매각/상환)
영업점 투자팀	영업점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IPO지원팀	IPO지원팀 (매각위원회)

#### 바. 운영실적

2005년 투자제도 시행 이후 2015년말까지 150개 업체에 1,741억원을 투자하여 누적투자수익률 8.4%를 실현중에 있으며, 자세한 연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5-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잔액
업체수	52	4	2	30	35	35	150	106
투자금액	501.6	55.1	35.0	431.8	366.6	405.8	1,740.9	1,289.3
투자수익	61.3	21.4	41.1	22.8	△17.8	22.3	145.9	-

단위 : 개, 억원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2) 투자옵션부보증

가. 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으로, 2014년 4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2월부터는 대상기업 및 보증한도 등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대상기업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으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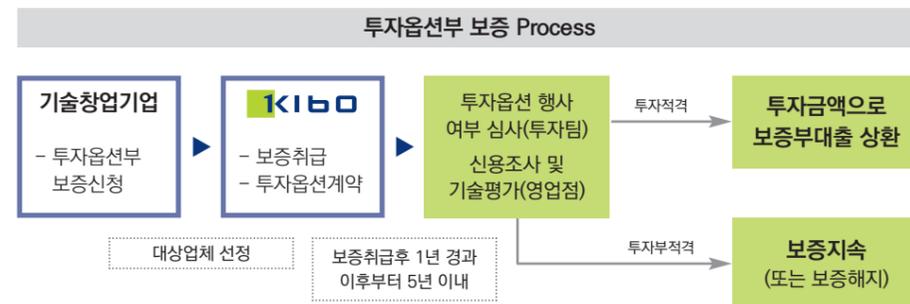
다. 대상채무

투자옵션부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금융회사등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차입하는만기 일시상환 운전자금대출

라. 보증한도 및 기한

기업당 10억원 이내 및 취급후 5년 이내로 운용

마. 업무프로세스



바. 우대사항

전액보증(100%) 및 0.5% 고정보증료를 적용

05 기업지원



가. 기보벤처창업교실

기술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기술창업교육을 5일간 실시하여 창업촉진 등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 기보벤처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교육장소	서울(1차)	서울(2차)	합계
수료자	104	90	194

단위: 명

나.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 새싹기업(창업 후 2년 이내, 보증금액 1억원 이내)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정착과 성공창업 유도를 위해 희망 CEO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인사·노무, 기보 지원제도 소개, 성공 CEO 특강 등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이 사업초기에 필요한 창업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 수료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업종 교류로 신사업분야 개척 및 업무파트너십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수료자 현황

회차	21차	22차	23차	24차	합계
수료자	80	88	89	90	347

단위: 명

다.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 창업 후 3~5년차 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우수기술기업의 CEO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성장 및 도약에 필요한 CEO 역량강화 전문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의 무료강좌로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5년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수료자 현황

회차	3차	4차	합계
수료자	53	48	101

단위: 명

라. 기술·경영컨설팅

기업성장 전주기에 걸친 기술·경영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및 실패예방을 위한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특히,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과 창업 및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론칭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기업의 사업현황 분석과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실현가능한 성공창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기업의 「기업건강 진단 → 처방(맞춤형 안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영개선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위해 자체 인력 및 TOOL을 활용하여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도약기업, 재기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컨설팅 사업을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함에 따라 창업 준비부터 위기/재도전 까지 단계별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완성, 기업성장 전주기에 걸친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기술·경영컨설팅 개요			
창업준비 단계	창업초기 단계	성장/성숙단계	위기/재도전단계
창업멘토링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창업후1년내기업) 창업컨설팅 (벤처창업교실 수요자 등 대상, 1MD)	진단컨설팅 (새싹강좌 수요기업 등 대상, 3MD)	전문(심화)컨설팅 (성장·도약기업·재기지원기업 등 대상, 4MD 이상)	
		진단컨설팅 (경영개선지원기업 대상)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일반기업, 경영개선기업, 구조개선기업 대상)			

※ MD : Man-Day(전문가 1인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수행 단위)

2015년 기술·경영컨설팅 지원현황						
구분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합계
지원건수	1,096	40	174	99	1,525	2,934

단위: 건

마.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원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전체 보증공급의 65.2%인 13조 858억원을 벤처·이노비즈기업에 지원하였다.

벤처·이노비즈기업 보증공급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벤처기업	76,444	118,128	109,967	109,895	111,459	115,860	111,718	119,368
이노비즈	66,783	95,746	89,697	85,102	83,730	78,123	70,867	67,359
합계*	93,204	140,220	132,619	128,650	131,778	135,258	130,858	134,635

※ 합계는 벤처, 이노비즈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자료임 (재보증 제외)

단위: 억원

바. 벤처인 (벤처확인·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기금은 벤처인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함은 물론,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정보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벤처인 전용 콜센터(☎1544-1120) 설치, 일대일 맞춤형 상담방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1. 창업(준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전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 즉시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경영주만 17~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
맞춤형창업성장 프로그램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6대 분야* 해당기업 지원 * 1인창조, 녹색, 지식문화, 첨단부리산업, 이공계창업, 4050창업
특허창업 특례보증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
R&D보증	R&D 주주기(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 지원
새싹기업 성공창업강좌	새싹기업(보증 1억원이하 창업후 2년내) CEO에게 세무·회계, 인사·노무, 기보 지원제도 등 교육
벤처창업교실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CEO에게 자금조달 전략, 인사, 법무, IP관리 등 창업실무 교육

2. 도약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정보통신 솔루션개발, SI서비스용역, 문화콘텐츠 제작 등의 체결에 따른 프로젝트 전주기의 보증지원
예비스타벤처기업 육성 특례보증	성장도약 단계에 접어든 우수벤처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육성
기술·산업융합보증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금융지원	지식재산(IP)의 미래가치 및 사업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자금을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및 신규 고용(예정)인원 직접 채용 소요자금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제작 기업 지원
보증연계투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과 직접금융 활성화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 소관 이노비즈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및 확인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기술 이전·거래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 및 제시
기술평가인증 (투/융자 참고용)	평가등급, 의견 등을 명시한 인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투·융자 등에 활용
도약기업 전문강좌	도약기업(창업후 3~5년차 성장가능성 보유 우수기술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전략 시뮬레이션 등 고급전문프로그램 교육

3. 성장/성숙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이노비즈기업 협약보증	은행과 금융지원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15개 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은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기보는 부분보증 및 보증료 우대
상생협약보증	대기업 등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후 취급실적에 따라 대기업 등이 특별출연
시설자금 특례보증	시설확충 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심사 등을 우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기술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수출 등 거래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출관련 자금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인수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기술이전/M&A 중개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업무
녹색인증평가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또는 사업의 기술우수성과 녹색적합성을 확인·인증
R&D과제의 경제성·사업성 평가	추진 중인 R&D과제 또는 기술사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4. 위기/재도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보증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등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
경영개선지원보증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유동성지원 (Fast-Track)보증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절차 (Fast-Track)로 유동성 지원
공동위크아웃기업 보증	채권은행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패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으로 기보, 중기청 등 진단기관이 협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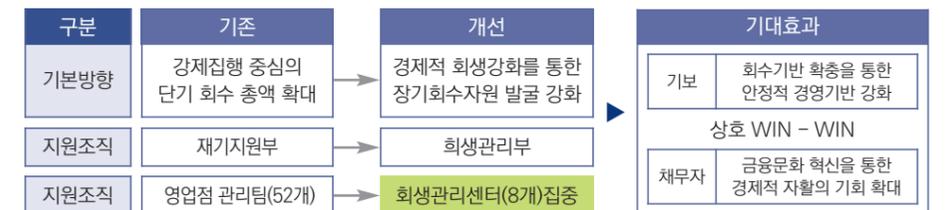
06

구상권관리·재기지원

가.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보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건전한 재기지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회생지원보증제도에  
더하여 자체적인 재도전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상권관리  
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보는 성실실패자에 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상권관리사업에 있어서 채권회수와  
채무자 재기지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나. 사고, 구상권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활성화와 더불어 기보는 보증재원 확보 및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고  
율 관리 및 구상권회수에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 사고관리

기보는 각 영업점별 보증자산의 리스크율을 산출하고 연간 사고예상 금액을 리스크율에 따라 배분하여 영업점  
단위의 목표사고율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체계적인 사고율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정적 수준의 사고율을 관  
리하고 있다.

2015년 목표 대비 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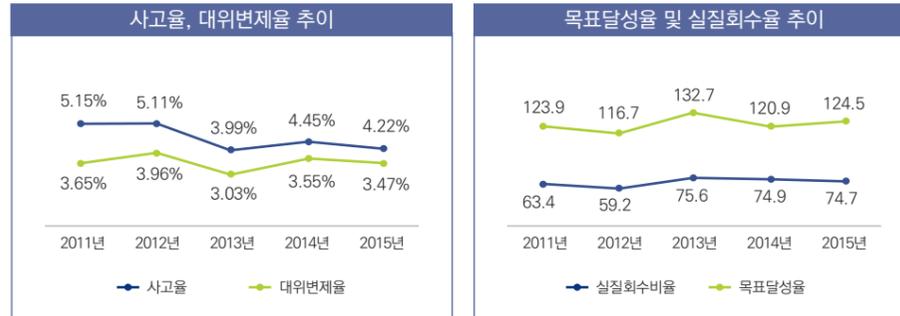
구분	사고순증		비고
	목표치	실적	
금 액	9,360억원	8,380억원	980억원 ↓
사고율	4.8%	4.2%	0.6%p ↓

주)유동화회사 편입기업 제외

● 연도별 사고·대위변제율 추이

중국의 소비위축 및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에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보증기업의 차입금부담  
감소로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 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구상권 회수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표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입보 금지, 파산·면책 등 법원 중심의 채무감면  
제도 활성화 등 회수환경 악화에 불구하고, 전사적 노력으로 '13년 이래 실질회수 비율을 75% 수준을 유지하  
는 등 구상권회수의 질적 수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목표 대비 달성을 또한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전사적으  
로 구상권 회수실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특수채권 매각을 통한 채권관리의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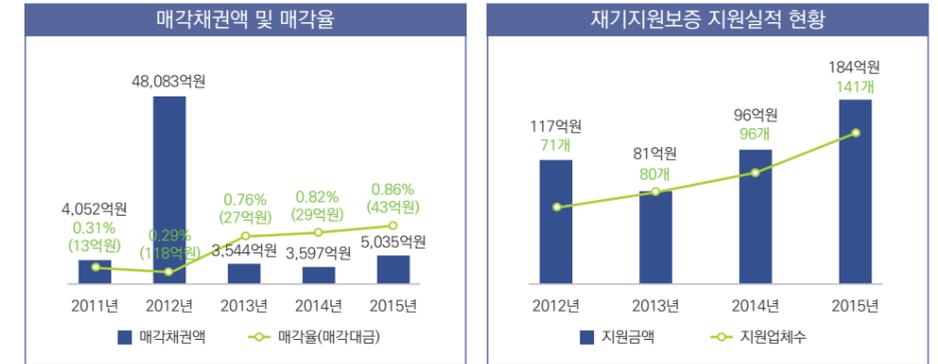
기보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특수채권의 누적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불가로 인한 회생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부터 채권매각을 실시한 이래 2015년말 현재 6조 4,311억 원의 특수채권을 매각하였으며, 2014년 7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매각대상 채권의 범위를 “대위변제후 1년 이상 경과된 구상채권”으로 확대하여 2015년의 경우 5,035억원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하였다.

● 회생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구상권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보는 2014년 7월 및 2015년 1월에 걸쳐 전국 49개 영업점의 관리업무를 통합·수행하는 8개의 회생관리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설치, 집약적 관리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성 제고, 관리업무의 노하우 축적 등을 도모하였고, 1인당 담당업체수 증가 등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회수금액은 증가하여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 성실실패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기보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외에 성실실패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등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4월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시행한 이래 매년 지원대상 업체수 및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재기지원보증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 재기지원보증제도의 절차 간소화 추진

기보는 재기지원보증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지원절차를 간소화(전결권 완화, 기술평가자문인력 참여생략 등)하고 2015년 10월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 활성화 대책”의 시행준비를 통하여 추가적인 절차 간소화를 모색 중이다.

●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실시 등 경영지원활동의 강화

기보는 2014년 5월 재기기업인 전문강좌를 최초 실시함으로써 재기기업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더불어 안정적 사업정착을 위한 성장프로그램 시행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성실실패자 발굴 → 재기지원보증 지원 → 사후관리 강화 및 지원활동(경영컨설팅, 재기기업인 전문강좌)실시 → 성공재도약”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재창업 전과정을 연계한 포괄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개요】

- 기간 : '15.5.21 ~ '15.5.22(1박 2일)
- 장소 : 기보 인력개발원
- 참가자 : 재기기업인 36명
- 내용 : 실무전문강좌(세무, 회계, 노무관리 등), 성공사례 전파, 특별강연(자기관리 등)

또한, 기보는 실패기업인의 재기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재기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하였다.

# 07

## 인재채용 및 인력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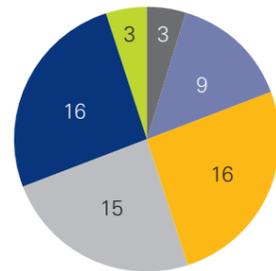
### 가. 인재채용

기보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기술기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에 대해 채용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기보는 TCB 사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신규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인력증원(22명) 및 자체 채용역력 확보노력을 통하여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4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고, 청년고용, 시간선택제근무자·고졸자 채용 등에도 주력하여 신입직원 중 39명을 청년층(34세 미만)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졸자에 대해서도 향후 대학 진학 등의 학습시간 배려의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3명을 채용하는 등 정부 권장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보는 2015년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방식을 채택하여 박사급, 이공계인력, 지역인재 채용확대에도 주력하였다. 기보의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박사급 8명(20%), 이공계 16명(40%), 지역인재 16명(40%)을 채용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 달리 박사급, 이공계인력, 지역인재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보는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인력 채용 쿼터(35%)를 설정하고 여성면접관을 배치함으로써 여성지원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15년도 신입직원(40명) 중 여성인력 15명(37.5%)을 채용하였으며, 청년인턴 신규인력(52명) 중에서도 60% 이상이 여성인력(35명, 67.3%)에 해당되었다. 이외에도 기보에서 1년이상 근무한 여성 비정규직 인력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 안정성 향상과 비정규직 감소에도 기여하였다.



〈2015 신입직원 신규채용 실적〉

- 취업지원대상자
- 청년인턴경력자
- 비수도권지역인재
- 비수도권지역인재
- 이공계
- 고졸(선택시간제)

전체 : 40명

신입직원 신규채용 실적

구분	채용인원	취업지원 대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시간 선택제)
신입직원	40	3	9	16	15	16	3

단위: 명

청년인턴 신규채용 실적

구분	채용인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
2015년	52	7	28	35	9	8
2014년	47	4	24	37	9	3
계	99	11	52	72	18	11

단위: 명

### 나. 인력개발

기금은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인력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에 HRD 전담조직인 인력개발팀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자체 HRD 연수를 위한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의 HRD 체계는 분야별 사내강사 등 전문인력 Pool의 인적자원과 연수원, Cyber 인력개발원, Cyber 문화센터 등의 Hardware, 연수이수학점제, 연수규정 등의 Software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전직원 기본역량, 계층별 리더십역량과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과정, 전문과정, 고급과정의 3단계로 세분하여 각 직위 및 직무별 연수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디지털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자기주도적인 상시 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Cyber 인력개발원 시스템을 구축 및 리뉴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의 업무연수를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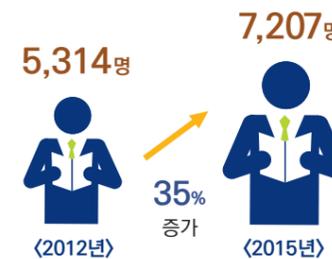
2015년도 기금의 인력개발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기초한 인력운영계획 및 인력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 연수 실적에 대한 결과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2015년도 종합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기보는 2015년 직원들의 직무역량 개발 고도화를 위한 실무능력 향상 연수과정을 중점 추진하였는 바, 기술평가사 보수과정, 관리업무 심화과정 등 기본과정에 문화콘텐츠 실무연수를 새로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수체계를 확립하여 컨설팅 직무 전문과정 설계 및 커리큘럼을 개선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창달 및 가족친화 연수 과정 확대 운영을 위해 가족사랑캠프(1월, 2회차 209명), 권역별 문화체험연수(여주,합천)(5월, 282명), 장기근속 직원(20년차) 조직활성화 연수(8월, 58명), 기술·문화체험연수(연중, 60명), 노사한마음연수(9월, 101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관리자·책임자의 리더십 개발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리더십과정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연수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내부 집합연수	1,370	1,711	2,948	2,937
외부 위탁연수	535	535	699	799
사이버연수	3,351	4,158	3,078	3,410
국외연수	58	60	58	61
계	5,314	6,464	6,783	7,207

단위: 명



## 08 고객만족

### 가. 추진개요

2015년도 CS업무는 고객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고객접점 직원의 CS역량 강화, 서비스 부진부문 집중개선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8.3점을 획득하였다.

### 나. 추진방향

-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응대서비스 역량 강화
- 서비스 부진부문 발굴 및 집중 개선활동 전개
- 고객의 소리(VOC)에 기반한 고객만족 추진

### 다. 고객만족 추진현황

#### ● 영업점 고객맞이·안내서비스 실시

영업점 방문고객에 대한 '고객맞이·안내서비스' 실시로 고객 불편 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 CS워크숍(CS리더·칭렘멘토 연수) 실시

CS활동을 영업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 CS리더·칭렘멘토(63명)를 대상으로 CS워크숍을 실시하여 전사적인 고객만족 경영의 매개체 역할 수행

#### ● 청년인턴 CS 집합교육

영업점 방문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코자 영업점 청년인턴(44명)을 대상으로 'Kibo CS매뉴얼 북'에 의한 기본예절, 전화응대요령 등 CS 집합교육 실시

#### ● CS클리닉 실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부진한 영업점을 대상(상·하반기 각 26개 영업점)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 ● CS광장을 통한 CS교육

CS 부진 부문 및 타기관 CS사례 전파를 통한 고객접점 직원들의 고객중심 마인드 제고 및 CS 실천을 유도

#### ●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 의견 반영코자 영업점장이 A/S Call 실시

영업점장이 직접 고객(750명)에게 전화 등을 통해 VOC 청취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

#### ● FGI(집단심층토론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기금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 중 일부(상반기 8명, 하반기 9명)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고객 대면방식을 통해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CS 추진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VOC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고객만족 제도개선에 반영

#### ● CS 평가 및 보상

- 이달의 CS 박히어로(고객만족 우수직원) 선정(12명)
- 분기별 고객감동 우수영업점 선정(2개)
- 고객센터 우수 상담원 포상(3명)

### 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체 고객만족도	88.4	89.2	89.1	88.1	88.1	88.7	88.6	90.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89.4		89.7		89.9		88.3	

단위: 점

# 09

## 윤리경영

### 가. 윤리경영 추진방향

- 윤리경영 최우수 공기업 구현을 위한 실천체계 개선
- 전담조직과 내·외부 협의체간 협력을 통한 윤리인프라 강화

구분	구성 및 운영	주요 역할	추진 성과
윤리준법부 (준법감시단)	- 공공기관 최초의 준법감시 전담부서로 31명 구성	- 준법감시 업무의 기획·통할 - 상시 모니터링 및 감찰	- 청렴정책 추진계획 이행 - 종합청렴도 2위
내부	윤리경영위원회	- 임원, 부서장 등 25명 - 정기 운영	- 청렴정책 추진방안 심의·결정 - 익명신고센터 도입 의결 등
	반부패 협의회	- 본부부서 실무자 20명 - 정기 운영	- 윤리경영위원회 실무기구 - 불합리한 제도 14건 개선
	청렴멘토	- 영업점 자율조직 67명 - 상시 운영	- 영업현장의 윤리경영활동 리더 - 행동강령 상담 및 실행 전파
외부	청렴파트너십	- 군인공제회 등 8개 기관 - 상시 운영	- 청렴 우수사례 공유 및 기관 전파 - 우수사례 11개 전파 및 '외부 강의·회의 신고 및 관리 강화' 등 우수사례 도입
	청렴옴부즈만	- 외부 변호사 - 상시 운영	- 부패요인 외부감시 및 평가 - 계약 68건 모니터링 및 행동 강령 시정 권고 2건 이행

### 나. 윤리경영 추진현황

####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방적 윤리경영 활동 추진

- ①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기준 제정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신고주체 확대) 내·외부 누구나 임직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  
(보호·보상 추가) 책임감면, 승진 등의 인센티브, 외부신고자 보상금, 위반자 징계 신설 등
- ② 고객참여,준법감시를 통한 청렴기술평가 프로세스 구축으로 부패 원천 차단

업무단계	기술평가 전	기술평가 진행 중			기술평가 후
구분	잠재고객	상담·접수	기술평가 실시	약정·발급	설문조사
주체	윤리준법부	고객·영업팀장	현장 평가자	영업점장	윤리준법부, 감사실
주요활동	윤리경영 활동 및 대외홍보	청렴협약서 체결	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청렴제도 설명 및 부패행위 파악	업무청렴도 전수조사, 고객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점검

- 고객 윤리경영 참여 유도 : 청렴협약서 체결, 브로커의 부당 개입에 대한 제재 사항 확인, 신용보증 약정서상 자금용도 준수 의무 명시

- 쉰 단계 준법감시 진행 : 준법감시단이 전 영업점 현장 점검, 부패취약분야 점검, 업무처리 점검 등

#### ③ 체계적인 윤리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효과성 제고

구분	대상	주요 내용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	신입직원, 실무자, 고위직 등 (335명)	윤리규범, 주요 청렴이슈 등
	주제별	전 직원 (2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행동강령
	직무형태	자산·계약·출납, 청렴업무·준법감시 담당자, 고객센터 위탁직원 등 (62명)	사례중심 청렴교육 등
	현장직원	영업점 현장 직원 (264명)	임원의 영업점 윤리달레마 교육 등
환류	교육 설문조사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	
	대내외 평가	효과성 측정 후 차년도 청렴업무 추진계획에 반영	

#### ●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 ① 윤리경영 우수 사례 타 기관 전파 :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8개 기관
- ② 윤리경영 우수사례 대내외 홍보 및 확산 노력

구분	우수 사례	홍보 수단	대상
우수사례 대외홍보	반부패·청렴시책 (133건)	권익위 정책공유방, 홈페이지	공공기관, 일반
	수익계약, 감사결과, 부패행위자 현황 등 (537건)	홈페이지	일반
	청렴계약서 등 고객참여 정책 (12회)	청렴메아리(온라인 청렴홍보)	보통거래업체
	준법감시를 통한 청렴프로세스 구축	제도 컨설팅	공공기관
윤리문화 대내확산	행동강령 등 윤리규범 (12회)	청렴알리미 (E-mail 또는 문자메세지)	임직원

### 다. 윤리경영 추진성과

#### ●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

- ① 종합청렴도 II 유형 최고 등급 달성(27개 기관중 2위)
- ②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달성(2014년 90.8점 ⇒ 2015년 95.5점)



# 10

## 리스크관리

기금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즉시성 있는 보증신상품을 도입하여야 하는바, 2015년에는 신상품 도입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신상품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창업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대비코자 기망거래경고시스템을 검토 완료하여 2016년 상반기중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 또한 연간 보증목표 초과달성에 불구하고 인수되는 리스크량은 목표내로 방어함으로써 기술금융지원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 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구체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유동성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통합위험지표인 통합RCR과 운용자산과 연계한 위기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매뉴얼화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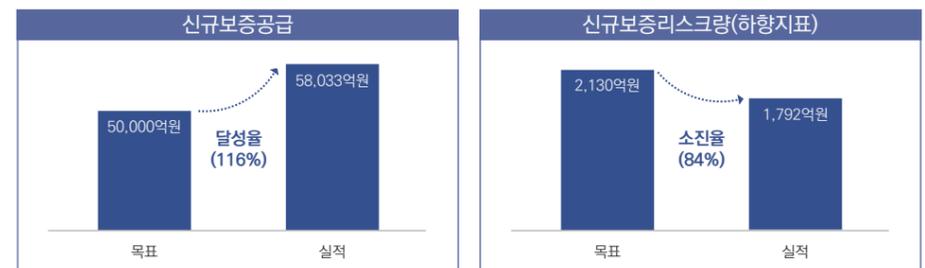
위기단계별 Contingency Plan 운용으로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 강화

단계	정상	주의	준위기	위기
허용 한도	통합RCR ≥ 110% or 운용자산 2조원 이상	100% ≤ 통합RCR < 110% or 1.7조원 ≤ 운용자산 < 2조원	90% ≤ 통합RCR < 100% or 1.4조원 ≤ 운용자산 < 1.7조원	통합RCR 90%미만 or 운용자산 1.4조원 미만
대응 방안	정상적 리스크 활동 수행	위기상황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실시 등	실무회의 운영 등 대응전략 모색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 나. 기술금융지원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적 보증을 중점·핵심부문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증목표를 효과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리스크 변동단계별 차등관리 및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 등 단위 영업점별 리스크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기술금융정책과 조화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보증 및 리스크목표 초과 달성



※ 재정보강 정책에 따라 0.5조원 확대운용

# 11

## 정보화업무

### 가. 전산 재해복구시스템 재구축

주 전산센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산 재해복구시스템을 경북 구미시에서 부산 강서구로 이전하여 재구축하였다. 재해복구센터 이전으로 주센터와 백업센터 간 이동 시간을 감소시켜 재해복구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고, 데이터트래픽 증가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역폭을 2배로 증설하는 등 재난·재해 발생 시 복구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재해복구시스템 재구축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추진효과
거리 단축	경북 구미(거리:120Km)	부산 강서(18Km)	전환 시간 단축
전산실 공간 확충	5평	9평	장비 추가도입 대비
통신대역폭 확대	100Mbps	200Mbps	데이터 복제 안정성 향상
위탁사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 나. 외장스토리지 및 백업장치 교체

기존 외장 스토리지 및 백업장치가 노후화됨에 따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하드디스크 방식(저속)에서 메모리 저장방식(고속) 스토리지로 교체하여 업무처리 응답속도가 약 55% 향상되었고, 통계자료 생성도 3시간 단축되는 등 업무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히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고속 데이터 백업장치를 도입하여 데이터 손상으로 인한 업무중단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구축 구성도



제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다.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

기금은 2014년말까지 인터넷 망분리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5년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보안 정책 운영을 통한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에 집중하였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직위를 본부장에서 상임이사로 격상하고 내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정보보안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정보보안 업무 중심의 IT조직 재편으로 보안관제, 내·외부 인력통제 등 정보보안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섰다.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무결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평가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실전과 같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기금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외평가와 실태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사이버보안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게 되었다.

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부 IT감리」 제도 신설

정보화사업의 내부통제를 통한 정보시스템 품질제고를 위해 「내부 IT감리」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 「전자정부법시행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외에도 전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거나 대고객 서비스 등 대내외 업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으로 감리대상을 확대하여 내부 IT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내부 IT감리반은 기금 정보통신분야 박사, 관련업무 팀장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감리가 수행되도록 하였다. 제도 신설 후 '기술거래정보망(Tech-Bridge) 고도화', '법무비용 지급 자동화 시스템' 사업 추진 시 내부 IT감리를 통해 프로젝트 전 과정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점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12  
사회공헌활동

가. 개요

기보는 모든 임직원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기보에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금융 공공기업의 모습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회공헌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나. 주요 실적

2015년은 기보의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새롭게 추진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였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자 수와 봉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헌 비전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현		
추진방향	① 업무역량 적극 활용	② 지역사회 기여 확대	③ 사회공헌 수준 제고
중점 실행과제	- 고객맞춤형 교육기부 실시 - 고객기업 광고·홍보 추진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지역 주민과의 교류·공감 확산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개선 - 자발적 참여와 봉사시간 확대

다. 세부 추진실적

● 기금의 업무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CEO 대상 성장단계별 교육기부 실시

구분	예비창업기	창업기	도약기	재도전기
프로그램 내용	대학생 성공창업 워크숍	벤처·새싹기업교실	도약기업 강좌	재기기업인 강좌
교육내용 및 실적	지식재산권/기술트렌드/세무/회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무료강좌 실시 ('15년 총 11회 26개 과정, 778명 수료)			

- 2015년도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실시



프로그램명	실시내용	주요 성과	
사계절 오감만족 프로젝트	겨울	매직콘서트 관람	-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각종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6명 참여 - 기금 직원과 1:1매칭으로 해당 자녀와의 접점 강화
	봄	영화 관람	
	여름	영화의 전당/뮤지컬 관람	
	가을	연극 관람	

● **유관기관 협업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공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 금융단지 입주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학생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명	부산 금융박물관 로드 프로그램
MOU	교육기부 활성화 상생협력 업무협약 (2015년 3월)
참여기관	기보,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부산은행, 부산시 등 7개 기관
추진실적	유아 및 초·중·고, 대학생 1,198명 수료

- 특강·설명회 개최, 기술전시관 무료개방 등 지역민 위한 밀착형 사회공헌 실시

구분	특강·설명회 개최	시설물 무상대여	기술전시관 무료개방	은행연합 봉사활동
추진내용	교육 강좌	대강당 임대	과학기술체험	겨울나기 물품전달
대상	지역주민	지역주민/거래기업	지역주민	저소득 취약계층
추진실적	- 인문학 특강 - 입시·진학설명회	- 인근 초등교 학예회 - BIFC 금융강좌 등 14회	- 방문인원 9,222명 (전년 대비 14% ↑)	- 남구 소재 취약계층 물품전달('15.11월)

●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 등 수준 제고**

-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변화 추진

구분	무료급식	농어촌 일손돕기
기존	- 방문자 전원 대상 무료급식 실시	- 농촌/어촌 지역 1곳씩 선정·실시
모니터링	- 거동불편 노인 급식 혜택 제외 - 소외계층 아닌 일반노인 급식제공으로 비용 낭비 요소 발견	-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촌봉사시 적정 일거리 확보에 지장(Ex:환경정화)
개선	- 거동불편 노인 직접 도시락 배달 - 주민대표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 - 인문학 특강 - 입시·진학설명회 → 예산 실효성 제고 → 참여부서 확대 : (2014년)14개 → (2015)16개	- 농산물 수확·포장 등 다양한 일손돕기 가능한 곳 신규 선정 → 일거리 증가 및 의욕 확대로 참가 인원 증가 : (2014)390명 → (2015)468명

- 직원 급여에서 매월 5천원 미만의 우수리 돈 공제하여 재난 등 각종 성금과 신규 사회공헌사업 수행 및 1사1촌을 맺은 정기후원자 지원

\* 우수리 공제 참여인원 : (2014년) 1,013명 → (2015년) 1,055명 (↑ 42명)

# 13

## 국제교류 및 협력

기보는 기술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 금융지원기관들과의 기술금융제도 교류 등을 통하여 기술금융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에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추진 등 금융한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보는 보다 활발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 가. 주요성과



싱가포르 기술평가시스템(KTRS) 연구 방문단 연수



필리핀 WIPO GREEN 기술이전 사업 참여



태국형 기술평가지표(TTRS) 개발(KSP 사업)



베트남형 기술평가지표(VTRS) 구축을 통한 시범 기술평가(Pilot Test) 실시(KSP 사업)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의 지식교류 워크숍



페루 중소기업융자보증기금(FOGAPI) 및 중남미보증기관연합(ALIGA) MOU 체결

나. 국제교류 현황

● 기금을 방문한 해외 유관기관

구분	기관명	교류 내용
1월	몽골신용보증기금(CGFM)	기관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3월	페루 중소기업융자보증기금(FOGAPI)	기관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4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기보의 역할 및 기술평가시스템 소개
	미얀마 은행연수원 외	기술금융시스템 및 제도 소개
5월	헝가리 국가경제부	혁신중소기업 지원 경험 공유
9월	싱가포르 혁신청(SPRING) 외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 관련 연수
	베트남 기업개발원 외	기술평가제도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정책 소개
	네덜란드 RVO 외	국제기술평가서 및 KTMS 활용방안 협의
11월	태국 신용보증공사(TCG) 외	기술평가시스템 실무 연수

● 기금의 국제회의 참가 외

구분	기관명	교류 내용
4월	WIPO GREEN 기술이전 시범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사업 추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아시아 금융기관과의 교류 확대
	일본정책금융공고(JFC) 워크숍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식 및 제도 교류
6월	AECM 연차총회	유럽 보증기관 협의체간 교류 확대
9월	제25차 ACSIC Training Program	아시아신용보증기관 실무자 회의
10월	IMF·WB 연차총회	세계 금융기관과의 교류 확대
11월	제28차 ACSIC 총회	아시아신용보증기관 교류 협력
	콜롬비아 FEALAC 초청 포럼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제도 소개
	싱가포르 기업협회(SBF) 초청 컨벤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12월	WIPO GREEN 연차총회	글로벌 기술이전 관련 기관간 교류 확대

1. 결산 재무제표
2.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3. 운영위원
4. 영업점현황

**(1) 2015년도 요약 재정상태표**

(2015.12.31 현재)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과목	금액	과목	금액
<b>I. 유동자산</b>	<b>2,119,297</b>	<b>I. 유동부채</b>	<b>151,500</b>
현금및현금성자산	12,010	선수수익	135,104
단기금융상품	1,065,832	기타	16,396
단기투자증권	930,950	<b>II. 장기충당부채</b>	<b>956,233</b>
기타유동자산 등	110,505	대위변제준비금	899,504
<b>II. 투자자산</b>	<b>710,255</b>	유동화보증대위변제준비금	32,346
장기금융상품	164,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1,044
장기투자증권	397,644	기타장기충당부채	3,339
기타투자자산 등	148,611	<b>III. 기타비유동부채</b>	<b>999</b>
<b>III. 일반유형자산</b>	<b>131,491</b>	부채총계	1,108,732
토지	41,289	<b>I. 기본순자산</b>	<b>10,360,891</b>
건물	80,658	설립시기본재산	21,768
기계장치	2,955	출연금	10,339,123
차량운반구 등	6,589	<b>II. 적립금 및 잉여금</b>	<b>(8,161,404)</b>
<b>IV. 무형자산</b>	<b>12</b>	전기이월잉여금	(8,227,874)
산업재산권	12	기타순자산의증감	40,000
<b>V. 기타비유동자산</b>	<b>442,774</b>	당기재정운영결과	26,470
구상채권	367,822	<b>III. 순자산조정</b>	<b>95,610</b>
보전채권	339	투자자산평가손익 등	95,610
보증금 등	74,613	순자산총계	2,295,097
자산총계	3,403,829	부채와 순자산 합계	3,403,829

**(2) 2015년도 요약 재정운영표**

(2015.1.1 ~ 2015.12.31)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총원가	수익	순원가
<b>I. 프로그램순원가</b>	<b>814,124</b>	<b>(290,017)</b>	<b>524,107</b>
산업금융지원	814,124	(290,017)	524,107
<b>II. 관리운영비</b>			<b>46,728</b>
인건비			23,510
경비 등			23,218
<b>III. 비배분비용</b>			<b>43,950</b>
자산감액손실 등			43,950
<b>IV. 비배분수익</b>			<b>123,677</b>
자산운용수익 등			123,677
<b>V. 재정운영순원가</b>			<b>491,108</b>
(= I + II + III - IV)			
<b>VI. 비교환수익 등</b>			<b>517,578</b>
부담금수익			477,34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40,231
재정운영결과(= V - VI)			(26,470)

**(3) 2015년도 요약 순자산변동표**

(2015.1.1 ~ 2015.12.31)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b>I. 기초순자산</b>	<b>10,360,891</b>	<b>(8,227,874)</b>	<b>125,006</b>	<b>2,258,023</b>
보고금액	10,360,891	(8,227,874)	125,006	2,258,023
<b>II. 재정운영결과</b>	-	<b>(26,470)</b>	-	<b>(26,470)</b>
<b>III. 조정항목</b>	-	<b>40,000</b>	<b>(29,396)</b>	<b>10,604</b>
투자증권평가손익	-	-	(29,395)	(29,395)
자산재평가이익	-	-	(1)	(1)
기타순자산의증감	-	40,000	-	40,000
<b>IV. 기말순자산</b>	<b>10,360,891</b>	<b>(8,161,404)</b>	<b>95,610</b>	<b>2,295,097</b>
(= I - II + III)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 이사 곽영철 |

| 이사 박기표 |

| 전무이사 강낙규 |

| 이사장 김한철 |



| 감사 최성수 |

| 이사 황대현 |

| 이사 유기현 |

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



이돈희

양희관

배병일



이종우



김만두



송경수



한현옥

### 기술보증기금 운영위원 명단

\* 운영위원회의 설치 : 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

2015.12월

구분		운영위원		
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지명 위원 (5명)	금융위원회 지명(1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손병두
	기획재정부장관 지명(1명)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중소기업청장 지명(1명)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백운만
	중소기업은행장 지명(1명)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박춘홍
	국민은행장 지명(1명)	국민은행	전무	이용덕
위촉 위원 (7명)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 위원회가 위촉 (3명)	신한은행	부행장	최병화
		부산은행	부행장	김승모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정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1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1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기술관련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2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김이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강 훈

일자	주요내용
2월 02일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2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등에 대한 우대보증 시행
3월 04일	기술금융추진단 출범
3월 04일	부산금융박물관로드 관련 업무협약 체결
3월 17일	공공기관 협업 우수기관 선정
3월 31일	제22차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개최(3.31~4.1)
4월 01일	창립 26주년 기념식
4월 08일	싱가포르 국무장관 방문단 기술평가기법 상호협력 방안 논의
4월 15일	제3차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실시(4.15~17)
5월 14일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업무협력 체결 (이사)
5월 22일	핀테크기업 지원 우대보증 시행
6월 0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기술이전·기술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6월 15일	메르스(MERS) 관련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7월 07일	기술가치평가기법 및 기술이전방법 특허 등록
7월 10일	"2015년 인구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7월 21일	대구·부산 기술융합센터 개소
7월 30일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8월 25일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개최(8.25~26)
8월 31일	기보 청렴캠페인 실시
9월 07일	싱가포르 혁신청(SPRING) 외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 연수 실시
9월 14일	마산지점 개점
9월 15일	장년고용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10월 12일	경산지점 개점
11월 02일	자체 개발 기술이전 매칭시스템(KTMS) 특허 취득
11월 06일	기술평가 세미나 개최
11월 11일	신입직원 40명 채용
12월 09일	청렴도 우수등급 공공기관으로 선정

영업점 현황

구분	주소	대표전화
경기영업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국민연금 수원사옥 6층	031)8006-1500
대구영업본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부산영업본부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051)606-7433
서울영업본부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71
인천영업본부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충청호남영업본부	대전 서구 둔산대로 141, 2층	042)610-2232
중앙기술평가원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빌딩(리빙관-11층)	02)2155-3770
가산지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906호	02)818-4300
강남지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	02)2016-1300
강릉지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0-8700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053)859-9000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00
광주서지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3층	062)970-9200
구로지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801호~1807호	02)6124-6400
구미지점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3층	054)440-0730
김포지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층 805호	031)980-8600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기업은행 4층	055)330-2100
녹산지점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0, 외환은행 3층	051)970-0600
대구지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구북지점	대구 북구 원대로 130, LH빌딩 5층	053)350-9500
대구서지점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00
대전지점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기보빌딩 1층	042)610-2201
대전동지점	대전 중구 대종로 540, 동양종합금융증권 2층	042)250-0700
동래지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051)510-6900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2층	055)249-9799
목포지점	전남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2층	061)288-1500
부산지점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보빌딩 3층	051)606-7686
부천지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부천테크노파크 301동 102호	032)620-8800
부평지점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중소기업은행 2층	032)509-1700
사상지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1, 하나은행 2층	051)320-3400
사하지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시우스빌딩 3층	051)250-7808
서울지점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서초지점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	02)3476-7265
성남지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6층	031)750-4800

구분	주소	대표전화
송파지점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02)3400-7900
수원지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국민연금공단 6층	031)8006-1500
순천지점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청우2빌딩 6층	061)729-9333
시화지점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KT&G 안산지사 3층	031)496-5911
아산지점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00
안산지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9층	031)8084-5300
안양지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2층	031)450-1600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3층	055)370-4700
용인지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 2층	031)8020-4000
울산지점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052)220-7900
원주지점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2층	033)730-8300
의정부지점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44, 석천빌딩 4층	031)820-0300
익산지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063)840-3100
인천지점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인천중앙지점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30, 기보빌딩 1층	032)420-3500
일산지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 15층	031)931-7200
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11층	063)270-9800
종로지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22층	02)2280-4800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 기업은행 4층	055)750-1111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055)210-4099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02호	041)629-5913
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텔프라자 6층	043)290-9513
춘천지점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033)240-2800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3층	043)849-8600
평택지점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031)659-8700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054)271-4900
화성지점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 우리들유통타운 C동 207호	031)299-8200
대구기술융합센터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50
부산기술융합센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3층	051)606-7323
대전기술융합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042)610-2279
서울기술융합센터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	02)2155-3652
군산영업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063)460-2800
오창영업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관 310호	043)251-1500
판교영업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2층	031)725-7800
오산영업소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4, 씨티은행 2층	032)369-5500
광주지점 제주영업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27-0271

#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지난 27년간, KIBO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기술금융 시장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기술평가'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꾸준히 정립해 왔습니다.

KIBO는 동북아 금융 허브 시대를 견인하는  
금융공기업으로 기술금융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